



지속 가능 동창회 위해 장학·네트워킹 강화 제33차 평의원 회의 성료... 동문·가족 등 66명 참석

박종수 동문 등에 공로패 17대 1차년도 사업 보고 이상강 회장단 적극 지지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들은 제 17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에 힘을 모아줬다. 지난 6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웨스턴 캐러비안 크루즈(프린세스)에서 개최된 제33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참가한 평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7대 회장단의 2차년도 임기가 시작됐다.

평의원 회의는 지난 6월 2일 개최했다. 배우자를 포함한 대회 참가자가 총 66명에 달하고 평의원만도 총 4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 지부가 골고루 참여했다.

이상강 17대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역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3곳의 지부를 방문했으며 장학 기금 보조로 10개 지부에 2만500달러를 지급했다”면서 “SNUAA 스칼라 프로그램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매달 8000여 부의 동창회보를 인쇄해 미 전역 동문들에게 발송했지만 발송리스트의 문제로 인해 이를 현실적으로 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인 18대 황효숙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속 가능한 동문회는 미주 동창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라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위기를 동반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로 더욱 가속된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홍립 서울대 총장은 이경형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의 대독에서 “지난해 모교 홈페이지에 미주 동창회 동문 62명이 참석했으며 여러 동문이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해줬다”면서 “서울대는 도움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미주 동창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웨스턴 캐러비안 크루즈 선상에 도착한 미주 동창회 제 33차 평의원 회의의 참석자 동문들이 크루즈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어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송우엽 사무총장의 대독에서 “지난 1991년 출범하여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대한 행사를 해온 미주동창회의 놀라운 단합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총동창회장 명의의 공로패를 받는 동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로 동문인 이채진(문리대 55) 종신 이사는 축사를 통해 “33차 평의원 회의에서 축사를 하게 돼 영광이다. 신병전으로 매우 어수선하다”며 “동문 여러분들 매사 조심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서 32차 회의록 인준, 17대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뒤이어 공로패가 전달되는 순서가 진행됐다. 서울대 유홍립 총장 공로패는 박종수 동문에게 수여됐고 서울대 총동창회 김종

섭 회장 공로패는 이태로(법대 50), 이영일(문리대 53), 김창수(의대 54), 이병준(상대 55), 이채진(문리대 55), 한효동(공대 58), 한홍택(공대 60), 서동영(사범대 60), 임낙균(약대 64), 최경선(농대 65), 김병연(공대 68), 조상근(법대 69), 김승호(공대 71) 동문이 수상했다.

미주 동창회 이상강 회장 공로패는 윤재중(농대 55), 김창수(약대 64), 하기환(공대 66), 박평일(농대 69), 백옥자(음대 71), 성낙길(문리대 77), 임영호(공대 72), 이승훈(상대 74), 정신호(자연대 78), 박희진(농대 78), 정세근(자연대 82), 박수경(생과대 84), 임소연(음대 91) 동문에게 돌아갔다.

또 17대 회장단 1차 회기년도 사업보고로 이어졌다. 17대 회장단은 장학위원회 보고, 동창회 운영기금 관리위원회 보고, 편집위원회 보고, 회칙 위원회 보고, IT/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위

원회 보고를 진행했다. 또한 1차 회기년도 재무 보고가 이뤄졌다. 2024년4월 30일 현재 자본과 부채를 합한 자산은 \$1,424,686.81였다.

백옥자 총무국장이 지난해 모교 홈페이지 참가 보고 후 몇 가지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동창회보 표제를 현재의 한글에서 영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롯해 16대 회장단 인수인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소프트웨어 사용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서 2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이후 오인환(문리대 63) 12대 회장이 나서 ‘한국인의 기원과 동북 아시아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이 열렸다.

이날 평의원 회의는 17대 회장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폐회했다.

〈관계기사 = 2, 3, 5, 6면〉
장병희 편집위원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동창회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토론 이어져

평의원 회의 이모저모

지난 6월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웨스턴 캐러비안 크루즈(프린세스)에서 개최된 제33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참가한 평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다.

평의원 회의 본 행사는 지난 6월2일 개최했다. 총 44명이 평의원이 참석해 미주동창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상강 17대 회장은 환영사부터 평의원 회의를 진지한 모드로 물었다. SNUAA 스칼라 프로그램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100만달러가 출연이 약속돼 더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매달 8300~8500부의 동창회보를 인쇄해 미 전역 동문들에게 발송했지만 발송 리스트에 작고한 동문, 귀국한 동문, 주소가 중복된 동문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가 확실한 동문들에게 종이 회보를 꼭 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지속 가능한 동문회’ 화두로

차기 회장인 18대 황효숙 회장은 지속 가능한 동문회를 화두로 내놨다. 그는 미주동창회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위기를 동반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로 더욱 가속된 디지털시대의 도래 등에 대한 논의를 역설했다.

역시 대안은 나와 있었다. 17대 이상강 회장이 추진중인 각 지부 활성화와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문들의 참여의식이 미주동창회의 초석이 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결 정족수 89명 확보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서 평의원 회의 정족수와 위임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평의원의 실제 숫자는 43명이고 여기에 위임장까지 포함하면



이상강 미주동창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이 평의원 회의 개최 시작을 알리고 있다.

총 89명이 참석했다.

위임장을 포함한 투표숫자는 남가주가 23명, 뉴욕과 뉴잉글랜드가 각각4명, 록키마운틴 1명, 미네소타 2명, 미시간 3명, 달라스 4명, 샌디에고 5명, 시카고 8명, 오레곤 3명, 워싱턴DC 2명, 워싱턴주 1명, 조지아 4명, 캐롤라이나 3명, 커네티컷 1명, 테네시 1명, 플로리다 1명, 필라델피아 6명, 하와이 2명, 하트랜드 6명, 휴스턴 5명 등이다.

1차 회기년도 사업보고로 이어졌다. 장학위원회 보고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한홍택, 박평일 동문이 소개됐으며 장학프로그램이 있는 지부가 10곳인 것으로 발표됐다. 2024년 장학금은 수혜자당 1만달러로 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응모 마감은 6월30일이고 심사에 이어 8월31일 발표된다. 현재 장학기금 운영은 센추리 펀드와 함께

투자하고 있다. 장학위원장이 기금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고광국-고국화 부부가 10만달러를 출연했으며 2030년까지 총 100만달러를 약속했다.

한홍택 동문은 올해 3만달러, 노명호, 김종섭, 이상강 동문이 각 1만달러를 약

정했다. 장례에는 최소 10개의 지명장학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부 분담금 6곳 미납

이어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선 12월호와 1월호를 통합해서 1월호로 발간했다.6월호를 6월 중순에 제작하여 6월말에 받는 것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었다. 5월호부터 배송 부수를 대폭 줄였다. 이는 중복 주소와 귀국 및 타계한 동문을 줄이고 새롭게 확보된 동문들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 작업중이다.

이날 지부 분담금에 대한 정보도 공개됐다. 남가주 3000달러를 비롯해 북가주 130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북텍사스 550, 록키마운틴 200, 미네소타 550, 샌디에고 550,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오레곤 300, 오하이오 300, 워싱턴DC 2000, 워싱턴 800, 조지아 800,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300, 캐롤라이나 300, 하와이 300, 하트랜드 550, 휴스턴 550달러를 냈다.

반면 코네티컷 (\$300), 미시간(\$300),

알래스카(\$200), 중부텍사스(\$200), 유타(\$200), 테네시(\$200)지부는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총21개 지부에 할당된 2만 1250달러 중 1만 9550달러만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회기년도 재무보고

이어 공개된 1차 회기년도 재무 보고는 다음과 같다. 2024년4월30일 현재 자본과 부채를 합한 자산은 \$1,424,686.81였다. 우선 센추리 파운데이션 펀드는 \$1,122, 303.91 등으로 은행에는 \$1,420, 686.81이 예치돼 있다. 반면 부채는 없고 자본은 \$1,120,699.25이고 수입은 \$303,987.56이다.

수입을 내역별로 세분해 보면, 센추리 파운데이션 펀드(종신이사비 등)에 \$209,000이고 일반 회비는 \$101,180이다. 기부는 총 \$198,700이다. 이외 잡수익을 포함해 총 수입은 \$557,896.36이다.

지출은 회보 관련해 \$104,966.19이고 커뮤니티 및 지부 지원금은 \$43,638.48이다. 이외 관리비는 \$93,187.13이다. 결국 총 지출은 \$253,908.80이다. 결국 총 \$303,987.56가 순익이다.

2차 회기년도 사업보고

한편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공개된 2차 회기년도 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학사업지원은 현재까지 \$20,500이 지급됐고 관악연대 지원은 \$2,500씩 지부에 지급한다. 또한 각 지부와 나은 소통을 위해서 지부를 방문하는 작업이 계속된다. 1차 회기년도에는 뉴욕, 하트랜드, 워싱턴DC 지부를 방문했다.

이외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고문단과 임원단을 활성화하고 한국 동창회와의 협조를 효율적으로 계속하며 미주동창회 집행부 인수인계 작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차 회기년도 예산안도 확정됐다. 수입은 \$688,532로 늘려 잡았고 지출도 \$382,350.16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순익은 \$306,181.8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뉴욕 신응남 동문(제15대 미주동창회장)이 평의원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서울대 총장 공로패를 받은 박중수 동문. 맨 오른쪽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공로패를 받은 동문들.

17대 고문단과 임원단 더 활성화 나선다



서울대 총동창회장 공로패를 받은 동문들. 오른쪽 사진은 평의원 회의를 마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강연

“한국인의 기원과 동북 아시아의 장래”



오인환
미주동창회 12대 회장

약 14,000년경부터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동북아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처온 우리의 고대사(고조선, 고구려, 부여, 그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와 조상들의 삶의 터전을 살펴 보면 우리 한국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안목이 솟아 날 것입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동문(박창범 박사, 79학번 프린스턴대 천문학) 동문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 데이터를 분석 연구하였다. 고대 고구려는 몽골지역에, 백제는 현 북경지역에, 상대 신라는 처음에는 상하

이 근처에, 후대 신라는 현 경주에 왕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의 역사학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는 현재에도 고대 유적들과 문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로 대부분의 한반도내 지명들이 중국 대륙에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가 아니라 “중국 역사는 한국 역사의 일부였다”가 맞는 말이지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페이스로

한국이 발전하여 북한을 통일하고 만주로 진출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고 몽골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서 동북아의 맹주를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게 우리 후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일본이 왜곡하고 흠쳐간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택동과 주은래도 생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축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채진
(문리대 정치학과 55학번)

하겠지만 북한은 핵 무장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남북대립은 더욱 악화 될듯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을 이미 시작했고 만일 Putin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 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일부 약소국가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정치도 심히 우려됩니다.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와 심각한 양극화 상황 속에서 평화롭고 건설적인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기가 어렵겠지요. 특히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서 만이라도 초당적인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불안할 때, 혹은 저의 심기가 매우 불편할 때면 저의 전공인 정치학 서적을 멀리 두고 동서양의 문학작품에서 해답을 찾아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시련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다고 하지요. 2,700여 년전 공자는 사람이 50대에 접어들면 이미 하늘의 명을 알았다고 하여 “지천명”이라고 했고 60대가 되면 귀가 순해 진다는 “이순”이며 70대가 되면 마음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려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Earnest Hemingway는 노인이 현명하다는 주장을 “great fallacy”(커다란 오류)라고 합니다. 1929년에 쓴 “A Farewell to Arms”에서 “They do not grow wise. They grow careful”(그들은 현명해 지지 않는다. 그들은 조심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 88세가 된 저에게 해당되는 경고 입니다.

한국 현대 문학에서는 모교 문리대 국문학과에 입학하신 박완서 작가와 모교 사범대를 졸업하신 김남조 시인을 저는 특별히 존경하며 인생사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두분은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2009년 우리딸이 세상을 떠났을때 박완서 작가님은 따뜻한 손편지와 한권의 책을 보내 주셨습니다. 편지에서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힘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모교에서는 “박완서 아카이브”를 만들어 박완서 작가의 저서, 원고, 서신, 일기 등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며 그녀가 작품을 쓰셨던 서재도 고스란히 재생하고 있습니다. 유흥림 총장님에게 문의했더니 금년 말까지는 완성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초 부터 모교를 방문하시게 되면 “박완서 아카이브”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겠지요.

우리 부부는 작년 5월 서울에서 wheelchair 에 앉아 계신 김남조 시인의 사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으며 10월 12일 그분의 영결식에 저의 처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김남조 시인이 주신 여러개의 시집을 애독했습니다. 그중에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 입니다.

“태어날 아기들과
미래의 동식물을 위하여
이름 없는 거
잊혀진 거
미지의 것을 위하여
가급적 다수를 위하여
그리고 보니 모든 걸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김시인의 인도주의적 해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사에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Cruise 여행 중에는 고민과 우려를 모두 잊으시고 자연과 유적을 감상하시며 동문들과 친지들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평의원 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미주총동창회도 더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금년은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시련과 도전의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Biden 과 Trump 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지지율은 오락가락 하고 현재로서는 오리무중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선거 결과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면 확전이 될지 우려 됩니다. 참혹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일반 대중을 위하여 저는 휴전이 멀지않아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더욱 발전



크루즈에서 진행된 저녁식사 시간에 모인 동문들 모습. 박종수 미주동창회 고문 부부, 15대 미주동창회장 신용남 동문 부부(왼쪽 사진),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장 부부(가운데 사진), 12대 미주동창회장 오인환 동문 부부(오른쪽 사진)의 모습이 보인다.

잊지 못할 와인 농담으로 몇 날을 웃었다

김자성 동문(의대79)의 카리비안 크루즈를 다녀와서

다. 달력에 몇 달 앞서 표시해 놓은 특별 기간이 기다려지고, 특히 여러 동문들이 같이 가는 그런 여행이라 설렘이 앞섰다. 가 보니 내가 제일 막내였다. 학번이 몇 년 늦은 김승배 홍보국장(음대 81)도 알고 보니 인생은 몇 년 선배였다.

개업일 하다보면 선뜻 시간내 휴가 가기 쉽지 않다. 멍색은 내가 보스니 내 맘대로 문 닫고 놀러 갈 수 있지만. 여행은 준비의 설렘부터 벌써 즐거움이

여행 내내 푸른 바다 감상

크루즈 배는 이미 두어 번 경험이 있기에 배에서의 일상은 별로 신기할 것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돈 좀 더 들여 발코니 룸을 택했더니 여행 내내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었다. 싱싱하게 파란 바닷물, 하늘과 바다만 보이는 망망대해. Fort Lauderdale에서 토요일 저녁 출발, 다음 날은 종일 바다 항해날인데, 우리 동문들은 따로 방에 모여 평의원회의를 진행했다. 나는 노는데 더 관심이 있는지라 회의에 연관된 내용은 생략한다.

매일 저녁 시간, 같은 Amalfi 레스토랑에 우리 일행이 단체 예약돼있는 터라 여러 테이블에 둘러 앉아 한 두어 시간 이어지는 식사를 했다. 휴가라 스스로 제약을 풀어 평소 안 하던 와인을 매일 맘껏 곁들였다.

일행 중 제일 높은 학번이 54학번인데, 선배님들처럼 건강을 잘 관리하면, 앞으로 한 25년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드니 이 정도면 풍족하고, 충분한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서는 선배님들은 이런 자리에 나타나 주시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것을 알겠더라.

와인 구<각>을 아시나요

마이클 김(상대 76, 김기형)께서 잊지 못할 와인 농담으로 몇 날 웃음을 선사했다. 나중에 쓰시라고 와인 구<각> 경험을 소개한다.

와인을 잔에 따라 슬슬 돌리면서 코끝으로 후<각>을, 잔을 들어 빛에 비춰 보는 시<각>, 서로 찜하며 청<각>을, 비로소 한 모금 들이키며 미<각>을, 삼키면서 풀<각>, 기분이 풀어지며 스르륵 심<각>해지는데, 어언 일행 중에 삼<각> 관계가 생기고, (남녀 뿐 아니라 강한 애고들이 서로 옹호상박하니), 모두들 그 추이를 지켜 보며 축<각>을 세우는데, 다음날은 깜빡 다 잊고 망<각>한다. 합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동문들이 갑판에 올라서 선상 가라오케 시간을 즐기고 있다. 크루즈 스태프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와 함께 김자성 동문이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다.

계 구<각> 체험.

짐바브웨 출신의 키가 장대한 흑인 미남 소말리에 노아가 테이블 사이를 왔다갔다하니 은근히 와인을 시켜야 할 듯한 최면에 걸려 매일 와인 병을 오더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맛의 와인.

두 마이클 덕분에 싱얼롱

코즈멜, 벨리즈 시티, 혼두라스의 로아탄 섬, 다시 멕시코 코스타 마야 네 곳에 기착했는데, 매 기착지에 다양한 당일 낮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세번 스노클링, 카약킹, Jeep drive, river cruise와 마야 유적지 돌아보기 등 최대한 많은 체험을 택했다. 그리고 저녁에도 두 마이클(마이클 김과 마이클 리, 이명일 약대 72)과 함께 몇 번 싱얼롱 시간을 가졌다.

이 여행 처음부터 마이클 김(김기형)

동문께서 바람을 잡으셔서 마이클 리(이명일)와 나에게 동문끼리 하는 가라오케, 씽얼롱 시간을 기획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몇 천명 승객 중 우리 작은 그룹이 따로 쓸 공간이 있을지 등등, 여러 불확실한 상황으로 느껴졌지만, 그래도 혹 뭔가 벌릴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감을 잡고, 휴대가 간편한 우쿨렐레를 가져왔다. 예상대로 이명일 동문은 부피가 큰 기타는 포기, 대신 붐 박스, 하모니카 셋트 등을 준비. 또 누군가 배 뒤쪽 끝에 있는 wake cafe 의 비교적 한적한 공간을 알아내 며칠 저녁 여남은 동문들이 모여 씽얼롱을 했는데, 같이 간 우리 합창반 여러 동문들도 동참해주셨다.

국경없는 음악의 밤

삼일 밤 씽얼롱 중 일어난 해프닝들. 첫날, John Denver 의 Today를 씽얼롱

으로 끝내자 어떤 젊은 백인 미녀가 다가와 노래에 사뭇 감동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노래인지 물었다. 왜 존 덴버의 노래를 모를까 의아했는데 바로 알고 보니 그녀들은 러시아 출신들로 크루즈에서 공연하는 세계적 음악인들이었다.

그녀는 바로 자기 바이올린을 가져와서 즉흥으로 우리와 합류 한껏 흥을 돋구어 주었다. 바이올린, 그 고전적 악기와, 지극히 humble 한 대중적 우쿨렐레가 같이 어울려져 한국 노래, 미국 노래들을 넘나들며 같이 어울리는 씽얼롱의 밤. 음악으로 국경이 없어지는 것 실감했다.

다음날은 우리가 씽얼롱 모임을 했던 자리에 미리 와 벤치에 누워 저녁 노을을 감상하던 백인 젊은 커플에게 마이클 리께서 양해를 구하는 차 대화를 걸었는데, 캔터키에서 온 목사님 부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My old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부부,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있다.

Kentucky Home을 같이 씬얼롱 했다. 이 곡은 우리 합창단이 이번 8월 공연에서 연주할 곡 중의 하나인데, 아주 깊은 서정적 느낌을 자아내는 노래이다. 그 젊은 부부도 한참 우리와 같이 씬얼롱에 참여.

댄스 무대는 동문들 차지

몇날 저녁은 영화 타이타닉을 연상시키는 메인 홀에 모여 춤추는 시간을 가졌다. 춤 실력만큼은 나를 능가하는 우리 와이프에 이끌려 몸치로서의 불편감을 이기고 여러번 무대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사교춤 고수 한효동(공대 58) 선배께서 우리 와이프를 돌리실 때, 하, 이것도 배워야 겠구나 하고 느꼈다. 싸부님 감사. 라인 댄스를 같이 배우는 시간에는 꽤 여러 동문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아마 무대의 20%는 우리 동문들이었다.

한번은 연주음악에 어깨춤을 덩실추시던 수잔나 민(민일기 약대 69 부인)께서는, 어떤 백인 여자의 눈에 발탁(?)되어 두 분만의 즉흥 댄스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 여자는 나비 날개 같은 소품을 준비해 와 다른 때도 몇 번 음악에 맞춰 싱글 댄스를 멋지게 보여주셨는데, 크루즈 단골손님 같아 보였다.

오늘의 즐거움을 느끼시길

일상 생활로 돌아온 지금,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할 일로 복귀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들의 휴가를 지난 주 우리처럼 비슷하게 즐길 것이 분명하니, 세계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 속에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배님들도 자기의 길을 살아오셨고 나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을 살고 있고, 또 누군가 미래에 내 자리를 채워 줄 것으로 생각하니, 큰 강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러니 너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또 순간 순간을 열린 마음으로 즐기라, 미적지근 머뭇거리기 보다는, 어색한 몸 놀림이라도 너의 삶의 무대에 뛰어들어 같이 춤추어라 등, 지혜의 신 Sophia의 속삭임이 들린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내 춤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 어떤 선배님으로부터 춤을 꽤 잘 추는 듯한 칭찬을 받았다. 뜻밖의 과분한 칭찬에 감사.

존 덴버의 '오늘' 노래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어 여기 한 구절 소개한다.

오늘, 아직 꽃이 줄기에 남아 있을 때, 난 너의 딸기를 맛보며, 너의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리. 수백만 내일들 모두 사라지리니, 내게 허락된 모든 기쁨을 잊기 전에.. 오늘..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오늘'의 즐거움이 있도록 오래 동안 계획하고 집행하신 여러 임원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재진 동문과 부인 강미자 동문이 크루즈 선박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정집 가듯 편안함 느끼며

강미자 (음대 62)

우리 부부(남편 이재진 동문)는 단체 크루즈는 처음이라 아는 동문들과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것부터 친정집에 가는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번의 크루즈 여행의 경험이 있었지만 특히 서울대 동문끼리의 크루즈는 처음이라 색다른 설렘이 발동했다. 사실 이곳 생활은 나에겐 몹시 외롭고 제한된 인간관계에서만 사는 답답함이 깔려 있던 차에 공동 분모로 엮을 수 있는 서울대 동문이란 울타리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도에서만 보던 서카리브해! 그곳을 내가 향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느껴진다.

우리 모두 승선한 후 각자 배정된 방에 짐을 풀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방의 구조, 오밀조밀 잘 디자인된 화장실과 샤워실,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넉넉한 옷걸이 등, 까다로운 나의 안목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알고 보니 만든지 2년밖에 안된 new Princess! 이 또한 행운이 아닌가?

주로 시원한 실내에서 바다를 보며 회의하고 친목 다지는데는 최고의 이번 크루즈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날엔 크루즈의 목적인 평의원

회의가 있었다.

동문 중 최고령 공대 54학번 부부의 거액의 장학 기금 기부 얘기를 들으며 선배님들께 놀라움과 존경심을 갖게 됐다. 다시 한번 더 서울대 동문임에 자부심과 애교심이 생겨났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뷔페식당은 이 배의 하이라이트라 생각된다.

양쪽으로 확트인 바다를 보며 삼삼오오 모여 영양 만점인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있겠는가?

부역을 멀리하고 지낸 7박 8일의 이번 크루즈 여행은 81세의 선물로 간직하고 싶다.

저녁엔 정장차림의 동문들과 격식 차린 웨이터들이 서브하는 수준 높은 식사, 가끔 회장님이 촛 비싼 와인이 테이블 마다 놓일 때면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배의 요리사가 직접 만든 김치가 테이블마다 나올 때면 외국 관광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동이었다.

잠깐 둘러본 조그만 세 나라의 모습은 멕시코를 비롯해 너무나 가난한 모습에 안쓰럽기 까지 했다. 무덤고 습한 날씨는 빨리 배 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이상강 회장님 과 너무나 애써준 백옥자 국장님께 감사하 드린다.



동문들이 유카탄 반도 마야문명을 볼 수 있는 벨리즈에 기착해 기념촬영을 했다.



동문들이 크루즈 배가 정박한 뒤 내려 동네를 구경하러 가기 전에 포즈를 취했다.

진짜 여성 건강 위한 브랜드로 초대박

라엘 CEO 백양희(경영학과 98) 동문

학과 98학번인 백양희 동문도 문과 출신이라서 특별한 기술이 없었지만 '여성을 위한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비전 하나로 기술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업에 성공한 경우다. 그의 성공기를 들어본다.

미국에서 성공해 부를 이룬 동문 중 상당수가 기술이나 전문직을 바탕으로 한다. 공대 출신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사업화한 경우, 의사나 변호사로 수십년 일해 부를 이룬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인문 계통으로 자기 기술을 갖지 못한 탓에 창업의 기회가 많지 않다. 역시 경영

라엘 창업자이자 현 CEO인 백양희 동문은 원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영화, 방송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가고 싶은데 막상 직업을 그쪽에서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 MBA를 따서 할리우드에서 일한 후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컨설팅 회사에 입사해서 사회 경험을 3년 반 쌓았다. 그 사이 MBA 준비를 했고 하버드 MBA에 올 수 있어서 2006년 훌훌 단신 미국에 왔다. 하버드 MBA과정을 하면서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지 않고 디즈니 인터내셔널 전략팀에서 일했다. 하지만 막상 졸업을 하니 유학생이라서 취직이 쉽지 않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택했다. 우선은 컨설팅을 하다가 할리우드에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BCG의 LA오피스에 입사했다. LA에서 2년을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고 디즈니 전략실로 들어가게 됐다. 디즈니에서의 경력은 7년 반 정도다. 한국의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미국에 도입하는 일을 해보려고 했고 디즈니에서는 디지털 영화 배급을 담당했다.

그렇게 7년이나 지나는 동안 사이가 강남스타일, BTS 등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백 동문이 생각하기에 MBA나 디즈니 경력이 한류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역할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전은 여기에 있다. 그의 디즈니 역할에 주목했던 미주 중앙일보와의 킨 인터뷰를 보고 현재 라엘의 코퍼운더로 작가인 아네스 안 대표가 연락해왔다. 안 대표는 여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여성 리더들을 인터뷰했기에 여성 리더였던 백 동문을 만나고 싶어했고 어느 날 만남이 성사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스스로의 인생도 바꿔놓지만 세상을 바꾸는 계기도 됐다. 매일 사용하는 여성용 위생 제품이 미국산보다 훨씬 품질이 더 좋다는 점에 착안했다.

“미국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한국 기술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오개닉하고 내추럴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가지고 오면 미국 사람들도 진짜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나눈 겁니다.”

처음 만났기에 두 사람은 고민이 필요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페미닌 케어 분야는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지난 100년 간 완전히 장악한 산업이고 심지어 90%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경우 강소기업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기업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한국 기술 가지고 와서 진짜 여성의 건강을 위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



라엘의 CEO 백양희 동문이 자사 제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라엘 제공]

원래 엔터테인먼트 사업 꿈꿔 공동 창업자 만나 방향 급선회 아마존 생리대 판매 1위로 명성 피부 마스크 넘어 먹거리까지

자.’
두 사람 옆에 또 다른 코퍼운더로 디자이너 출신 원빛나씨가 합류했다.

2017년 드디어 라엘이 시작됐다. 생산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 공장이 맡았다. 처음부터 아마존에 제품을 런칭했다. 기존 제품과 차별점은 오개닉 코튼 커버로 흡수력, 성능이 좋았다. 이전에도 오개닉 제품이 있었지만 오개닉에 집중하다 보니 가능성이 떨어져 흡수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오개닉이라도 지속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라엘은 기술적으로 흡수력에 초점을 맞췄고 오개닉 커버로 참신하고 새롭게 제품을 런칭했다.

아마존의 런칭도 성공에서 한 몫했다. 6개월 만에 오개닉 패드 부분 1위가 됐다. 별 다섯 리뷰가 쌓여서 라엘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에는 타겟에 입점했고 2021년에는 CVS, 월그린에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아마존 패드 부문 1위를 하고 있다.

“라엘의 베스트 셀러로 오개닉 패드를 시작했지만 라엘은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자는 초심을 잊지 않고 생리용품만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호르몬 주기를 살펴봤다. 호르몬 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나온 게 여성 청결제, 물티슈(와이프스)다. 이런 제

품을 더 내추럴한 성분으로 런칭했다. 이어서 더 큰 도전이 시작됐다. 바로 스킨케어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생리하기 2~3일 전에 호르몬성 여드름이 생긴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생리주기로 인해 일어나는 호르몬성 여드름을 없애주는 패치를 내놨다. 한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절찬리에 팔리는 제품인데 미국인들은 5년 전만 해도 그 존재조차 몰랐다. 현재 여드름 패치는 아마존은 물론, 타겟, 월마트, CVS, 월그린에서 판매한다.

이후 미국인들은 모르는 한국만의 기술로 만든 제품에 초점을 뒀다. 바로 마스크 팩이다. 4년 전 아마존에 런칭했는데 이게 대박(성공)이었다. 소위 한류의 일종인 K-뷰티의 힘이다.

마스크 팩도 4가지 종류가 있다.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넷으로 나눠 4주 동안 다른 팩을 사용하게 된다. 생리하는 주에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므로 그에 맞는 제품을, 그 다음 주에는 여드름이 많이 나므로 티트리오일이 들어간 제품이 적용된다. 이렇게 4가지 마스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잡지사 에디터들, 소매업자,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라엘은 스킨 케어로 마스크 패치에 이어서 클린저, 크림, 세럼도 내놓고 있다.

비즈니스가 순조로우면 기업은 새로운 것을 내놔야 한다. 라엘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초에는 건강기능 식품도 런칭했다. 홀리스틱 웰니스 브랜드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포함시켰다. 이제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와 관련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아마존 마케팅 이외에도 틱톡과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이다. 인플루언서도 많고 자체 팔로워도 많다. 2019년에는 한국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임에도 한국으로 역진출했다. 한

국에는 현재 제품 개발팀, 마케팅 세일즈팀이 있다. 한국의 토탈 여성용품 전문점인 올리브영에서 오개닉 패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물론 한국에도 유사한 오개닉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1위라는 독보적인 포지셔닝이 한국 여성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아마존 1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서울대 경영학과와 하버드 MBA라는 남들도 부러워 하는 학벌이 있지만 백 동문은 공부만 한 학생이 아니었다. 학부 1, 2학년 때는 경영대 노래패 일원으로 공연하러 다녔고 3, 4학년 때는 댄스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네트워킹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마존 1위를 잘 살려 펀드레이징도 성공적이다. 누적 투자액은 5500만달러다. 프리시리즈A로 2018년 3월에 280만달러, 2018년 9월에 시리즈A로 1750만달러, 2022년 3월에 시리즈B로 3500만달러를 받았다.

주요 투자는 할리우드 영화배우 제시카 알바와 ‘아티스트 컴패니’를 공중 창업한 브라이언 리씨의 벤처 캐피탈인 BAM벤처가 초기 투자자이고 NYX코스메틱스를 창업해서 로레알에 매각한 토니 고씨도 투자자다. 이외 유니레버 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미래 에셋, 시그나이트 파트너스(신세계 벤처캐피탈)가 주요투자자다.

현재 라엘 생리대는 미국의 대형 유통매장을 포함해 14개국 3만4000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임직원이 80명이며 미국 본사는 향후 캐나다, 유럽 시장을, 한국 법인은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www.getrael.com

장병희 편집위원

58 동기회 “우리는 4.19 학생 혁명 주역” 자부심

가장 자부심이 강한 학번을 꼽으라면 단연 1958년 입학 세대다. 50~60년대의 격동기를 한 몸으로 겪어내 58학번 세대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사를 압축해 놓았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특히 대학 2학년 때 일어난 4.19 학생 혁명 때는 시위의 선봉 주축이 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온천하에 드러냈다. 학생이 주도한 시위가 민주혁명으로 승화된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족적을 남겼다.

“우리가 모이면 4.19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그때 나는 무엇을 했나’ 되돌아보며 지금 이 나이에든 가슴이 뻐뻐합니다.” 서울대 58학번 동기회의 박상길(농대) 회장의 회고다.

58학번은 남가주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가장 숫자가 많다. 동기회가 파악한 숫자만도 90명에 이른다.

58학번이 공식 모임을 가진 것은 2024

남가주 등록 회원만 40명, 단톡방 만들어 소통 젊은 세대엔 ‘꼰대’ 아닌 ‘롤모델’ 인식 변화

년 2월 임춘택 동문이 남가주 총동창회장에 취임하고 나서다. “선배님들을 모시고 동창회의 진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며 58학번을 LA 한인타운의 강남회관에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모임에서 박상길 동문을 만장일치, 회장으로 추대해 이후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박상길 회장은 모임을 꾸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4.19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우리 58학번이 이제 손주나 돌보는 뒷방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말이 됩니까. 의기투합해 만든 것이 58학번 동기회예요.”

동기회는 회원 전용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다. 등록된 동문은 모두 37명. 동문들의 경조사는 물론 갖가지 건강 생

활정보도 올라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명선(상대) 동문 등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분들도 적지 않다.

58학번이 동창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양민(공대 77) 동문의 아들이 경찰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한 아시아계 단체가 가주마켓에서 개최한 추모 집회에 박상길 한효동 두 동문이 ‘근조 서울대 58학번 동기회’ 플래카드를 들고 참석한 것.

“동기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돼서 근조 플래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플래카드를 사용한 것이 양민 동문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마흔해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많이 착잡했어요.” 한 동문은 못내 아쉬운 듯 고

개를 떨궜다.

이 플래카드는 그러나 양문 동문들에게 앞장섰던 80학번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50년대 학번에 대한 인식이 ‘못말리는 꼰대’에서 ‘우리의 롤 모델’로 바뀌게 된 것이다.

58학번 동기회에 앞서 57학번들도 강신용(사대 74) 당시(2018년) 총동창회장의 도움으로 정기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다. 정동구(공대) 동문이 이끌었는데 김병완 한효동 두 58학번 동문도 ‘준회원’으로 참석했다. 57 동기회는 그러나 얼마 안가 문을 닫았다.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분들이 늘어나고 또 운전이 어려움을 겪어서다.

“우리 모임이 꼭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문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해요.” 박상길 동기회장은 다음달 모임 참석자들을 확인하느라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고 있다.



LA한인타운내 강남회관에서 열린 58학번 동기회 모임. 20여명이 모여 담소를 즐기고 있다.



박상길(왼쪽) 한효동 동문이 양민 동문 아들의 장례식에 ‘근조 58학번 동기회’ 플래카드를 들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초창기 동문활동 사진 보내주세요”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1975~2025) 발간 내년 2월초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맞춰

내년 창립 50주년(1975~2025)을 맞는 남가주 총동창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를 발간한다.

임춘택(상대 68) 회장은 “50년사는 내년 2월초 예정된 남가주 총동창회 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에 맞춰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난 반세기에 걸친 동문들의 다양한 활동을 450여 페이지에 담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50년사 발간을 위해 임춘택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골드북 커미티’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총괄 기획국장인 홍성선(약대 72) 동문을, 총무

에 이호진(간호대 74) 동문을 각각 임명했다. 김상찬(문리대 65)·김병연(공대 68)·성주경(상대 68)·한귀희(미대 68)·김지영(사대 69) 동문 등 전직 총동창회장들은 자문 및 감수위원으로 위촉했다.

50년사 편집은 박용필(문리대 66,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전 미주동창회보 편집고문) 동문이 맡는다.

이외에도 사진 및 자료 수집은 홍선례(음대 70)·김옥권(미대 76) 동문이, 홍보는 최진석(법대 64)·홍선례 동문이 각각 맡아 진행한다. 지원팀에는 이상호(사대 80)·조용국(사대 91) 동문

이 위촉돼 공문 발송과 원고 청탁 등을 돕는다. 50년사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두화보(지난 50년의 발자취) ▲원로 좌담회 ▲주요 연례사업 ▲각 단과대학(대학원) 소개 ▲관악연대 ▲동호회(산악회, 서기회, 말수회, 이목회 등) ▲Who’s Who(유의영, 한홍택, 유희자, 정재훈, 이명선, 하기환, 이채진, 박종수, 김택수 등) ▲화제의 동문 ▲추모의 장(타계한 동문들)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총동창회는 70~80년대 동문들의 초창기 활동이 담긴 사진 및 자료들을 널리 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세이와 시, 칼럼들을 책자에 실릴 계획이라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이호진(818-321-2214).

총동창회는 또 50년사에 실릴 광고도 접수하고 있다. 발행부수는 1,000부로 예상하고 있어 광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홍선례(213-503-6964).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인류 문명은 왜 불평등 ... 속을 들여다본 빅히스토리

뉴욕 독서(북)클럽 '총·균·쇠'를 읽고

뉴욕지역 1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시작한 북클럽이 지난 2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번째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지난 5월16일에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의 책 <총·균·쇠>를 주제로 두번째 모임을 갖고 주제별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을 했다. 펼쳐다. <총·균·쇠>는 지난 10년간 서울대 및 우수 대학의 도서관 인기도서 대출 1위를 기록하며, 풀리처 상 수상과 함께 100 만권 이상이 판매되는 선풍적 인기를 모은 책이다.

<총·균·쇠>는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인, 왜 어떤 민족들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각 대륙들마다 문명의 발전 속도에 차이가 생겨났는가? 등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명쾌하게 분석하며 설명한 불후의 역작이다.

저자는 1972년 7월에 열대의 섬 뉴기니의 해변을 거닐고 있었을 때, 그곳의 정치가로 알려진 알리의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총, 쇠도끼, 성냥, 의약품 등)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자로 하여금 이 역작을 쓰게된 동기라고 밝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연봉원(문리대 61) 변호사는 먼저 ‘다이아몬드 교수는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인류학을 먼저 공부한 후 대학원에서는 생리학을 전공하여 의대 교수를 지냈고, 50 대에는 지리학을 공부하여 박사가 되고 대학에서 지리학을 가르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 이라고 저자에 대한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서 “먼저 나는 저자의 상상을 초월한 박학다식함에 경의를 표한다. 이 책에서 인류학, 생물학, 역사, 언어학, 지리학 등에 대한 논설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했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며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의 발달 과정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종적인 우열 때문인가? 또는 역사적인 이유인가를 다룬 각종 연구 논문을 소개 하면서, 그 주된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저자의 핵심 주장을 전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륙들마다, 나라들마다 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차이가 났는지를 규명하고 그 결정적인 요소는, 이 책 제목처럼 <총·균·쇠>로 본 것이다.

그는 대륙간의 차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시작됐지만, 각 나라마다 차이가 심하게 나기 시작한 것은 서기 1,500년 경부터 시작 되었다고 주장한다. “많이 발달한 나라와 덜 발달한 나라가 만났을 경우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는 것은 역사의 필연성 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발달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에 대한 질문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습게도 “우연”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는 말로 그의 발제를 끝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형무(법대 69) 변호사는 “인류 역사상 짐승을 사냥하거나 먹을 것을 채집하며 살아가던 수렵 채집민들에 비해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경민들이 점차적으로 힘을 보유하게 되었던 원인은 식량 생산으로 떠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 이라며 “이에 따라 농경민들은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문자를 쓰



뉴욕 독서클럽 동문들이 책 '총·균·쇠'를 읽고 토론을 했다. 오른쪽 사진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균·쇠'의 표지.

무기 병원균 금속은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바꿨는가 일본 민족 기원 살피며 한국과의 연관성도 풀어

게 되고, 전쟁을 더 잘 수행하는 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를 만들게 되었다” 라고 전했다.

농경민들이 가축을 키워 이용하게 됨에 따라 동물들이 가진 균들이 인간에 옮겨가게 되었는데, 세균의 대부분이 역설적이게도 거의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염병으로 진화하였다. 예를 들어, 천연두, 독감, 결핵, 말라리아, 홍역, 콜레라는 모두 동물의 전염병에서 진화한 전염병이지만 인간들이 주로 갖는 전염병이 되었다.

질병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이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전투에서 입은 부상보다 세균 때문에 죽는 전사자가 더 많았다. 전쟁사에서 위대한 장군들이 미화되지만 과거의 전쟁에서는 유능한 장군과 더 나은 무기를 보유한 군대가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었으며, 더 지독한 세균을 적군에 퍼뜨린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로 시작된 유럽 사람들의 남북 아메리카 정복에서 잔혹한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원주민들도 많았으나, 그보다 스페인 등 유럽인들이 갖고 온 세균에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들이 희생된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아마존강 유역이나 태평양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외부에서 방문한 한 명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작은 부족의 거의 전체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그같은 전염병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어 몸 안에 항체를 통한 면역력이나 저항 유전자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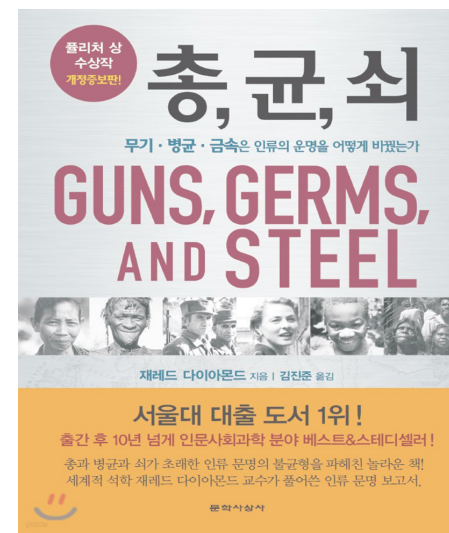
예를 들어, 1902년 겨울 고래잡이 배의 한 선원이 가져와서 옮긴 이질 전염병으로 캐나다 북극권의 사우스 햄프턴 섬에서 고립되어 살던 이누이트 소부족 56명중 51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미국의 학생들은 북아메리카에 약 100만명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배웠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북아메리카 해안에 상륙한 초기 유럽인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인디언 수가 2천만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인 도착후 인디언 인구가 거의 95 퍼센트까지 줄어 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많은 인디언들이 유럽 정복자들에 의해 죽었으나, 그 많은 인디언을 죽인 주범은 구 세계에 유행했던 병원균이라는 것이다. 최형무 동문은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균>이 인류 역사문명에 중요 원인 이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다.

세번째 발제는 조상혁(대학원) 동문이 이어나갔다. 그는 최근 일본을 여행하며 일본인이 곳곳마다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조상의 신을 경배하는 토착 종교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하나로 단결하게하는 힘을 보았으며, 또한 모든 박물관마다 그들이 일본 막부시대에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때 개발하여 주요 병기로 사용하던 각종 조총을 전시한 것을 보며,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북동아시아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그들의 무기 <총>을 중시하던 무사계급의 후예를 보고 왔으며, 다이아몬드 교수의 인류문명이 <총·균·쇠>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주장에 동감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 했다.

네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군식(음대 82) 동문은 “대부분의 미국인과 많은 유럽인에게 아프리카 원주민은 흑인이고, 하얀 피부의 아프리카인은 근



래에 유입된 불법 침입자라며 우리가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백인 정착민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프리카에는 흑인뿐 아니라, 인류를 여섯 인종으로 분류할 때 다섯 인종이 살고 있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중 25%가 오로지 아프리카에서만 쓰인다” 며 “이런 인간 다양성 면에서 아프리카에 견줄 대륙은 없다” 라는 저자의 연구내용과 주장을 전했다.

1000년경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 백인, 아프리카 피그미족, 코이산족, 아시아인들의 다섯 인종들이 사용한 언어는 무려 1500종에 달했으며, 이는 다섯 개의 어족으로 1)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2) 나일사하라어족 3) 니제르콩고어족 4) 코이산어족 그리고 5)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인도네시아어족으로 분류된다는 조지프 그린버그(스텐포드대 언어학자)의 연구를 전했다.

서구문명은 근동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그리스인과 로마인에 의해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3대 서구의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셈어족’ (Semite languages)과 관계있는 세 언어(아람어, 히브리어, 아랍어)의 사용자들에 의해 양태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어족인 아프리카-아시아어족의 갈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린버그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전하며, 구약성경, 신약성경, 쿠란은 쓴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음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홍적세 이후의 발전 속도에서 아프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느린 요인은 두 대륙의 축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중심 축은 남북 방향인 반면,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축은 동서 방향이다.

남북축을 따라 이동하려면 기후와 식 환경, 강수량, 낮의 길이, 작물과 가축의 질병등이 매우 다른 지역을 지나야 한다.

<9면으로 계속>



2024년 모교 홈커밍데이 10월 20일 개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모교에서 열리는 2024년 홈커밍데이 일정을 발표했다. 홈커밍데이 본행사는 10월 20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버들골에서 열리고 21일에는 골프,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미주 방문단을 위한 고국투어가 진행된다. 고국투어의 세부 일정은 추후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백옥자 총무국장은 “불과 4개월 후라

서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항공편 예약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대략의 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락: (818)395-1967(백옥자)

‘2025년 세계대학순위’ 서울대 31위, 도쿄대 앞질렀다

영국 평가기관 QS 공개 1위는 13년 연속 MIT

영국고등교육평가기관QS(Quacquarelli Symonds)의 최신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대가 31위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QS가 지난 6월 초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 QS 세계대학순위’에 따르면 서울대는 31위로 일본 도쿄대 등을 앞질렀다. 서울대는 학계 평판 및 직원 평판, 교수와 학생 수 비율, 논문 인용도 등을 종합해 내린 종합 점수(100점 만점)에서는 82.3점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앞서 2023년 29위까지 올랐다가 2024년 종합 점수 78.5점으로 41위로 내려앉았는데 2025년 평가에선 10계단 상승하면서 28위에서 32위로 하락한 도쿄대를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는 학계 평판(98.5점)과 지속가능성(96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외국인 교수 비율(10.5점)과 유학생 비율(16.9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외에도 국내 대학에서 카이



서울대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의 최신 세계대학순위에서 지난해 보다 10단계 상승하면서 31위에 올랐다.

스트,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5곳이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카이스트는 53위로 전년도 56위보다 3계단 올랐으며 연세대(76위→56위), 고려대(79위→67위), 포항공대(100위→98위) 모두 순위가 올랐다.

2025년 QS 세계대학순위는 세계 105개 고등교육체계에 속한 대학 1천500곳 이상을 대상으로 매겨졌다. 이중 미국

내 교육기관이 19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90곳), 중국(71곳)이 그다음으로 많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매사추세츠공대(MIT)가 13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으며, 영국의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와 옥스퍼드대는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권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NUS)가 8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중국

베이징대(14위), 싱가포르 난양공대(NTU·15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순위가 하락한 대학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대체로 높았다. 미국 대학 중에서는 67%, 영국은 58%가 순위가 내려간 반면 인도는 9%, 중국은 16%만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8면에서 계속>

고로 아프리카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 작물화, 가축화된 식물과 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반면 유라시아에서는 작물과 가축이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 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동했다. 거리가 많이 떨어졌더라도 위도는 같아 기후와 낮의 길이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유럽인과 아프리카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리적 우연과 생물지리학적 우연이 겹친 결과였다.

특히 면적과 중심축 및 일련의 야생 동식물종에서 두 대륙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두 대륙이 밝은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은 궁극적으로 지리적 환경인 ‘부동산’ (Real Es-

tate)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양군식 동문은 문명의 차이를 단순 간결하게 설명하는 저자의 결론을 전하며 주제 발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은 신응남(농대 70) 변호사가 저자가 추가 논문으로 수록한 “일본인의 뿌리”에 대한 주제 발표였다.

“세계의 선진국 중에서 그 문화와 환경에 있어 가장 특색 있는 민족은 일본인이다. 일본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조몬인과 야요이인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일본인은 과연 누구이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진화시켜왔는가? 일본인의 조상은 한민족인가?” 라는 질문에 현대의 일본인은 기원전 4세기경에 벼농사 기술을 갖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인들의 후예라고 강조했다. 그 근

거는 체질인류학과 고고학 그리고 고고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고 지적했다.

한인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제1의 증거는 일본인이 한국인과 외모가 너무 비슷하고, 유전자가 같다는 데 있다.

제2의 증거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같은 우랄알타이어족의 독특한 한일 두 언어의 공통점과 특징에 비추어, 일본어는 집단 이민한 한인들이 쓰던 당시의 고구려 말이 변화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3의 증거는 일본의 고대 조각상은 수염이 수북한 아이누족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즉 한인들을 묘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종래의 고고학과 문헌사학에 치중됐던 한일 관계사 연구와는 달리, 첨단 과학의 지식을 도입한 권위 있는 서구의 학자가 일본인의 뿌리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사는 한일 양 국민들에게 상호 불신과 증오의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결론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립과 갈등은 상호간에 파괴적일 뿐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한일 양 국민들은 유년기를 함께 지낸 한 핏줄의 쌍둥이 형제와 같음은 부인 할수 없는 고고학적 사실”이라는 저자의 연구 결과를 전했다.

신응남(15 대 미주동창회장)은 마지막으로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 지속적인 독서클럽 활동의 필요하다”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문들은 제 3 차 북클럽 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정한 후 모임을 마쳤다.

<뉴욕 독서클럽 제공>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음대71입 ♥이경숙 가정관리학과70입
이만택 의대52입 ♥조무상 법학과 70입 ♥한귀희 회화과 68입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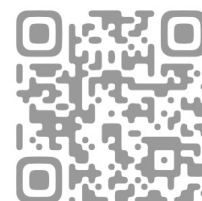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도쿄의 지하철 1회용 티켓.



도쿄 디즈니에 있는 스몰 월드,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에 있는 것과 똑같다.



도쿄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국의 모습. 1층은 약, 2층은 화장품, 3층은 일반 잡화를 판매한다.

한방 약, 화장품, 파스 등 싸뜩이 구매한다

엔저 겪고 있는 일본을 가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엔저로 인해 미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몰리고 있는 것이 화제다. 예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일본의 엔화 덕분에 미국 달러를 쓸 경우, 그야말로 물 쓰듯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마침 일본의 친지를 방문해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기자가 일본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5월 말이다. 친지는 일본에서 25년째 무역업을 하고 있다. 하네다 공항에서 만난 친지는 우선 예전에 비해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 정도는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기에 체감할 수 없었다. 다만 달러 대비 환율이 1달러당 70엔이었는데 이제는 140, 심지어는 150엔에 달한다며 엔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려줬다. 기자는 공항에서 1달러당 154.49엔으로 바꿨다. 엔화를 며칠새 조금씩 바꿨는데 호텔에서는 147.26엔, 관광지에서는 145.3엔까지 바꿨다. 인상적인 것은 ATM 스타일의 외환 교환기가 여기저기에 설치돼 환전이 매우 쉬웠다.

원래 외국에 가면 자기 나라 물가와 현지 물가를 매번 비교하기 마련이다. 이런 비교는 한국에서도 했는데 일본 방문 경험이 없었던 기자에게는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지는 않았다.

친지는 엔저가 무척 힘든 이유를 역시 수입 물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인데 수출 물가만 내려가는 바람에 일반 일본 시민들의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세계 관광객들의 쇼핑 장터로 변하고 있다. 다시 표현하면 세계에서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기자는 아고다로 2월 쯤에 호텔을 예약했다. 박당 126.05달러였지만 엔화 결제가 아니다 보니 경제적인 이득은 전혀 보지 못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결제 시점은 호텔에 체크인 하기 1주일 전에 이뤄졌으니 아고다나 호텔 예약 대행사는 앞서 환차익을 더 봤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과 마주쳤다. 들리는 말이 일본말 보다는 한국말이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 현지인보다는 한국인을 더 만난 셈인데 한국인들만큼 중국인, 인도인, 동남아 출신 관광객들도 많이 만났다. 이들을 다시 많이 만난 곳은 소위 쇼핑센터인 시부야 지역의 돈키호테라는 쇼핑몰이다. 건물 하나가 통째로 쇼핑의 명



도쿄 신주쿠의 크로스. 세계 수많은 나라의 관광객이 인파를 이룬다.

고정가격 상품은 저렴해져 곳곳 택스 프리 상점 활발 도쿄 디즈니는 75달러 선

소였다. 물론 이름에서 눈치 챌 수 있듯이 고가의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 아니고 잡화를 파는 곳이다. 다른 곳과 비교해 싼 것은 아닌 듯하고 다만 모든 물품이 가득히 쌓여 있었다. 미국의 참고형 슈퍼 스토어를 흔히 봐왔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물품을 뽁뽁하게 쌓아놓고 팔고 있었다. 특히 중국인들이 온갖 잡다한 물품을 사는 것을 봤는데 최소한 중국제가 아니니 살만 했을 것이다. 한국인들도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한방 약, 진통제, 화장품 등을 싸뜩이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 진짜 그랬다. 화장품은 물론, 통증에 붙이는 파스에는 조그맣게 한국어로 설명이 써있었다. 한국인들의 필수 품목이라는 의미다.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GU쇼핑몰, Muji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중국인

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외국인들에게는 택스 프리 코너를 이용하게 한다. 특히 큰 쇼핑몰의 경우 전용 층이 있었다. 판매액이 5500엔(한국에선 1만5천원)이 넘으면 택스를 제해 줬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치솟는 수입 물가에 어떻게 대처할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입 원자재다. 대략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원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계속하겠는가.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산 원자재를 값싼 중국산으로 대체해서 해결했다. 품질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에 비해 요즘 일본에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곳들이 바로 수출 기업들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도요타 자동차인 듯 싶다. 원채 현금을 쌓던 기업인데 차량 가격을 올린데다가 엔저까지 일어나니 대박이라고 전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일은 역시 고정된 가격에 돈을 쓸 때다. 디즈니 입장료는 미국 디즈니랜드의 경우 최고 179달러 수준인데 도쿄 디즈니

는 아담한 사이즈만큼 입장료도 저렴했다. 75달러 수준이다. 또 미국에 비해서 대부분의 음식 값이 조금 저렴했다. 햄버거 값이 싼고 택시 요금의 경우, 미국 보다 완연히 싼다. 특히 전통 시장의 가격은 달러 영향으로 매우 싼다. 스트리트 푸드나 스니전문점의 식사 비용이 너무 저렴했다. 다만 코카콜라의 가격은 미국과 비슷했다. 한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 고기덮 밥집인 요시노야도 방문했는데 역시 가격이 저렴했다.

도쿄 타워 탑 데크 입장료는 1인당 3000엔(\$20)이었다. 다음은 각종 요금을 정리해봤다. 1달러는 대략 145엔으로 계산했다. 지하철 1회권 150엔(\$1), 도쿄 디즈니 머그컵 1500엔(\$10), 도쿄 타워 기념 열쇠고리 680엔(\$4.69), 호텔 조식 2800엔(\$19.3), 호텔 온천 입장료 1800엔(\$12.41), 택시 기본요금 2200엔(\$15.17), 맥도날드 피치 스무디 560엔(\$3.86), 프렌치프라이 라지 390엔(\$2.68, 미국은 \$3.69), 샤브샤브 1인분 3597엔(\$24.8), 하이볼 550엔(\$3.79) 등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저렴해 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먹는 것은 미국과 비슷했다. 기자가 일본 방문 후 찾았던 한국에 비해서 비쌌다. 하지만 이 또한 품목에 따라서 다르므로 참고만 하면 좋겠다.

다음은 현재 한국 물가다. 1달러를 1,400원으로 계산했다. 택시비 기본요금 4800원(\$3.42), 남산케이ابل카 왕복 1인당 15,000원(\$10.71), 울유캔이 트 고기(명륜진사갈비) 1인당 19,900원(\$14.21), 봉골레 19,800원(\$14), 카페 라테 6000원(\$4.28), 5인 저녁 식사(삼환축산 남포점) 91,110원(\$65), 공항직통열차 1인 11,000원(\$7.85), L타워(서울스카이) 관람권 4인권(가족) 93,000(\$66.42),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3,400원(\$2.42), 프렌치프라이 라지 3,200원(\$2.28, 미국은 \$3.69), 인천공항 식당 소문 돈가스정식 12,900원(\$9.21) 등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젊은 동문 · 선배님들 · 장학생 어우러진 멋진 야유회

뉴잉글랜드

최진민 회장 1년 더 연임
학생 10명 선정해 장학금
임영호 전 회장 등에 공로패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는 지난 6월 15일 뉴튼 어번데일 파크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겸한 연례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악회 회원인 20여 젊은 동문을 포함, 60여 동문들과 장학생 등 약 70 여명이 참석하였다. 정기 총회 1부에서는 정기총회 안건 인준,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틀전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 변동없이 최진민(공대 71) 회장과 김광수(자연 73) 장학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인준했다.

동문들은 그동안의 야유회 중 보기도문 화장한 날씨를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여러 동문들이 한식뷔페를 준비하는 동안 김광수 장학위원장의 장학사업 소개와 올해 선정된 10명의 장학생에게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3년전 김광수 장학위원장 이하 이현구(자연 98), 신진우(농생 04) 위원의 활발한 모금 활동으로 많은 추가 지원을 받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장학생 후원사업은 서울대에 한하지 않고 뉴잉글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계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40-50여 명의 신청자를 심사하여 10여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정, 장학금(\$2,000-\$3,000)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2명이 지원하여 10명(고등학생 1명, 대학생 6명, 대학원생3명)을 선정하였다. 김광수 위원장은 장학생들 중 각 분야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을



뉴잉글랜드 동문들이 지난 6월 15일 뉴튼 어번데일 파크에서 모여 정기 총회 겸 야유회를 열고 있다.

빛낼 분들이 나올거라고 확신, 보람을 느낀다면서 장학 사업은 젊은 동문과 선배 동문간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남의 답소에는 한국 정부 보스턴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서울대 병원이 특화 연구소로 지정되어, 김용진 의생명 연구원장님 등 특화연구소 보직자들이 이번 6월에 오셔서 동문회 소속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등 네트워킹, 한미간 공동사업화 추진 등을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야유회에 윤순호 교수님(영상의학과), 장윤희 교수님(신경과)이 참여하여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신진우 전 관악회장과 함께 이 네트워킹을 주선한 서울대 병원 이형철 교수님은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큰 금액을 찬조하여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식사는 불고기 바베큐, 푸짐하고 다양한 한식 뷔페, 후식으로 과일 떡 등이 충분히 준비돼 모두에게 야유회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 주었다. 점심 식사후 이어서 계속된 총회 2부에서는 단체 사진 촬영과 장학생 수상자들의 짧은 수상 소감 발표가 있었다.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과 지정 기부를 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끝으로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영호(공대 72) 전 회장, 김경일(공대 58) 회칙 위원장, 이의인(공대 68) 경조 위원장, 김광수(자연 73) 장학 위원장, 김재성(공대 87) 재무 간사, 이현구(자연 98) 학술 간사 겸 장학 위원에 대한 뉴잉글랜드 동창회 공로/감사장 증정이 있었다. 2024년도 장학생과 후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예지(공코드 고교 졸업반):미주 동창회, *박민철(하버드대 졸업반):김용구/

조만연, *황정민(예일대 3학년):박영철/이재신 기금, *김찬호(하버드대 3학년):정선주/이재신 기금, *민예찬(NEC 3학년):이규진/조만연/Thomas Adams, *문상현(하버드대 3학년):윤상래/신상철/이강필, *조용인(하버드대3학년):이의인/KCSB/김병국/장용복, *김윤희(하버드 박사과정):이재신 기금, *채민진(하버드 박사 과정):조만연/박정부, *임주광(보스턴대 박사 과정):유규호

취재=백문성(문리대65)

필라델피아

점심시간대로 옹긴 총회...50여명 참석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지난 6월 15일 열린 총회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 사진은 레크레이션 시간에 한 율동 순서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였던 두 동문이 앵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심희진 회장 1년 더 연임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심희진)가 지난 6월 15일 랜스데일에 있는 코리 레스토랑에서 동문과 가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동문들은 심희진 회장의 1년 더 연임을 결정했다.

심 회장은 “밤운전이 어려워 그동안 연로하신 동문들 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총회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옮긴 덕분에 오랫동안 반가운 선배님 얼굴을 뵈 수 있어 기쁘다”

며 “맛있는 점심 드시고 여흥도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모임마다 동문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동문 강사의 특강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엄종열(미대 61) 동문이

‘민족 정체성과 재외동포 뿌리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는 2027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화보집을 준비하면서 동문 주소록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날 새로 만든 동문 주소록을 동문들에게 나눠줬다.



동문 집 앞마당서 BBQ 파티 ... 40여명 모였다

남가주 문리대 김순길 동문
“부담없이 와서 놀자” 초청
모교 김종섭 총동창회장도

남가주 문리대 김순길(외교학과 61) 동문이 다우니에 있는 자택으로 동문들을 초청해 BBQ 파티를 열었다.

부담없이 와서 놀자고 회비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멋진 집 앞마당을 열고 와인도 준비해둔 김 동문의 따뜻한 동문 사랑에 화답해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조건으로 한 동문이 550달러 상당의 양념 갈비를 후원하고 또 한 동문이 500달러를 후원하고 문리대 골프모임인 이목회도 500달러를 후원하는 등 후원이 앞을 다투어 음식은 풍성했고 좋아하는 동문들과의 담소 자리라 그날 모임은 더욱 느긋하고 여유로웠다.

전임 문리대 동창회장인 이경희(독문학과 83) 동문이 올해가 환갑인데 동문회에서는 어린 축에 속해 아직도 갈비를 구워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어떤 다른 모임 보다 문리대 동문과의 만남은 고향에 온듯 마음이 간다며 평생 함께 가자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직업이 이민 변호사라 젊은 동문들이 업무차 사무실을 많이 찾으니 어떻게든 그들을 유인(?)해보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순길 동문이 동문들을 위해 자택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허리 수술을 두 번이나 해 골프는 커녕 오래 서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도 문리



집 정원에서 동문 초청 BBQ 파티를 연 김순길 동문. 오른쪽 사진은 동문들이 모여 한마디씩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 골프모임 이목회의 뒷풀이 자리로 여러 차례 동문들을 집으로 초청했고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호스트를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유는 단 하나, 동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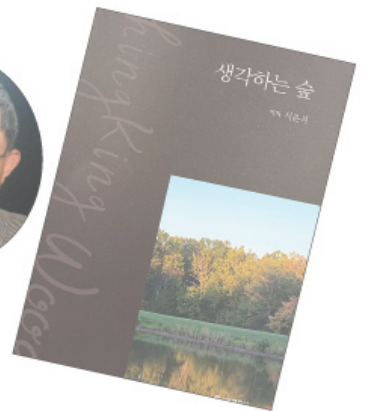
입담 좋은 문리대 동문들이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농지를 얹아 진행이 어렵다며 울초 신년모임때는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김종하(영문과 85) 문리대 동창회장도 이날은 참가 동문 모두가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도록 했고, 두세마디를 해도 웃으며 경청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날 모임에는 바쁜 서울 일정을 마치고 최근 남가주에 온 김종섭(사회복지학과 66)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서윤석 동문 5번째 작품집 발간

한영 시 산문집 ‘생각하는 숲’

서윤석 동문(의대 62)이 최근 한글과 영어로 쓴 시와 수필을 엮어 ‘생각하는 숲’ (Thinking Woods, 사진)을 펴냈다. 2021년에 펴낸 한영 이중언어 시집 ‘무심한 구름(Callous Cloud)’에 이어 3년만에 펴낸 다섯 번째 작품집이다.



서울의대 미주동창들을 위한 계간 회보인 시계탑 편집인을 맡고 있는 서 동문은 2010년 월간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후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미주연합회 워싱턴지부 회장, 워싱턴 문인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현대시인협회의 지도위원에 위촉되면서 시인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22년 팔봉문학상(포토맥 포럼 문학상)을 받았으며 배정웅 문학상,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가 선정한 ‘윤동주 문학상’ 특별상도 수상했다. 의사로서 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상(2008), 함춘미주공로상(2018) 등도 받았다.

서 동문은 서문에서 “28세에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산 기간이 53년이 되었다. 이번 작품집은 2, 3세 후손들을 위해 영어로도 썼다”며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성심을 다해 보람있는 작품에 정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책에는 총 39편의 시 작품이 4부(자연과 역사, 의료현장, 인연들과 가족, 오늘을 사는 생명)로 나누어 실려 있으며 산문은 총 12편으로 채워져 있다.

서 동문은 이비인후과와 두경부외과 전문의로 40여년간 활동하고 은퇴했다.

김태윤 · 신건호 동문 구순 축하연



남가주 법대 월례 모임

남가주 서울 법대 동문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6월 11일 월례 모임을 LA한인타운 용수산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올해 구순을 맞는 김태윤, 신건호 동문의 구순 축하연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후배들은 두 선배님의 구순을 축하하면서 건강을 기원했다.

왼쪽이 김태윤 동문, 오른쪽이 신건호 동문. 서울 법대 동문회는 정기모임을 통해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작가 류호씨 8월 3~11일 개인전

류원(대학원 언론 정보 74) 동문의 자녀인 사진작가 류호씨 개인전 The Edge II가 오는 8월3일부터 12일까지 LA한인타운 작가의 집에서 열린다. 류원 동문의 부친은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와 창작미술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원로 서양화가 고 류경채 화가이며 어

머니는 한국 희곡작가협회장과 예술원 회원을 역임한 고 강성희 작가로 손자인 류호씨가 조부모의 예술가적 기질을 물려받은 셈이다.

오프닝 리셉션은 8월3일 오후 5시다. ▶작가의 집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전주 한옥마을 □ 단순한 한옥주택으로 보존하지 않고 상가와 식당으로 개발했다



서해 남해 곳곳에 섬과 육지를 잇는 흔들다리들이 관광객들을 부른다.

삼천리 금수강산! 추억의 장소들로 달려갔다

김인중 동문의 한국 방문기(2)

개성을 찾아가 읍은 시조. 한국 여행중에 입안에서 중얼중얼 개사가 됐다.

서울에 도착해 여장을 풀자마자 수십년간 버르던 일들의 수행에 나섰다. 추억의 장소들로 달려가는 것이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개벽하되 인걸은 사라지고 /아, 40년 타국생활이 꿈이런가 하노라.’ 야은 길재가 조선 이성계에게 나라를 잃은 고려의 수도

천지개벽의 나라

세월은 모든 것을 바람으로 날려 보낸다. 그리고 세월은 그 빈자리에 알지 못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운다. 한민족은 세월을 무수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며 채워가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초현대식 건물에서 고층아파트, 지방마다 이룬 관광단지에서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고속 교통망까지. 10년만에 방문한 한국은 벌써 여러 번의 천지개벽을 진행했다.

꽃동네 1번지

소년시절이 묻힌 곳 - 종로구 화동 1번지.

모교 중고등학교다. ‘1900년 고종황제 때 세워진 중등교육의 발상지 경기중고등학교’, 정독도서관으로 바뀐 모교의 입구에 묘비명처럼 새겨져 있는 글이다.

교문을 나서면 정면으로 경복궁으로 가는 길이 있다. 경복궁 돌담길을 끼고 청와대 쪽으로도 한가히 다녔었다. 정문 왼쪽 안국동 골목으로 덕성여고, 풍문여고를 지나는 인사동 길은 등하교시간이면 교복의 물결이 가득했다. 할머니 라면집, 담배 몰래 피던 골목길 구석, 쌍둥이 엄마 문방구집... 지금은 TV에 나왔다는 맛집들로 가득차 있다.

정독도서관에는 봄날의 벚꽃 나무들이 그 시절 조희서고, 뽕박질을 하던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Where have all the young men’s gone?’ ‘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의 노래 가사. 고교평준화, 무시험 입학제도 도입으로 한 시대를 마감해야 했던 당시의 명문고교들.

그래도 옛 교정과 건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보존되며 또다른 지식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고향으로 남아 있다는 것. 이 천지개벽 중에도 흔적이나마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관악에 오르다

모교 서울대학교. 과거 동숭동 쪽의 문리대, 의대, 음대, 공릉동 공대, 수원 쪽 농대... 뽕뽕이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 캠퍼스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974년부터 관악산으로 이사했다. 당시 불평 불만 반대도 많았지만 박대통령의 통치 행적이 그렇듯이



종로구 화동 1번지. 정독도서관으로 바뀐 모교 중고등학교, 그 유래는 묘비처럼 남아있다.

지나보면 필요한 선택이었다.

그후로 발전한 관악캠퍼스는 거대한 지식, 학문의 성, 도시를 이루었다.

시내버스가 캠퍼스를 돌고, 학교버스가 학생들을 각 학과 건물로 실어 나른다.

관악캠퍼스의 백미는 세계 유수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 도서관’이다.

관정 이종환 동문이 600억 원을 기부하고, 여러 동문들의 십시일

반 기부금이 보태져 총 700억원 비용으로 40년간에 걸쳐 완성된 건물. ‘한국건축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공중에 떠 있는 건물 설계로도 유명하다. 이 도서관을 돌아보다 보면 다시 서울대에 입학해 이 도서관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열망과 지금의 재학생들에 대한 부러움이 교차한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후 천지개벽을 해 온 모교 서울대학교에 어찌면 이방

인 처럼 느껴질 뻔 했던 소외감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교수, 임직원들과 푸릇푸릇한 후배 학생들의 친절함으로 새겨진 수많은 기부자들의 이름들은 떠난 자들이 이 모교의 품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다. 학교는 어찌면 이들 떠난 자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면서 정상을 향한 천지개벽을 계속하고 있다.

먼지와 모래의 나라

관광버스를 타고 찾은 설악산. ‘오늘은 미세먼지 경보가 있습니다’ 관광가이드의 말이다. 우리가 살던 시절에는 못 들었던 말이다.

중국에서는 까만 매연 먼지가 날아오고, 몽고에서는 누런 먼지가 날아오면서 황사, 미세먼지가 한국의 그 푸르던 하늘을 메웠다. 설악산 신흥사 입구에서 본 대청봉은 회색 먼지에 덮인 하늘에 가려져 희미하다. 중국쪽에서 온 황사 미세먼지가 한국 동해안의 산맥에 막히면서 이쪽 산간지역의 미세먼지는 어떤 때는 도심지보다 심하다고 한다.

모교의 뒷산 관악산을 올랐을 때도 정상에서 본 서울 시가지도 잿빛이었다. 미세먼지 경보로 야외활동을 삼가하러니... 중국 육이 안나올 수가 없다.

그래도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 먼지와 모래에 적응이 된 듯 ‘뭘 어떡해, 견디며 사는 거지.’

항상 침략당하며 살아온 착한 한민족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먼지 모래의 침



설악산 신홍사 입구에서 본 대청봉은 자옥한 먼지와 황사로 가려져 있다



세계의 명품 꽃들을 모아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 순천만정원은 한국 원예학의 첨단을 보여준다

구석구석 아기자기, 보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

략까지 견뎌야 한다니.

관광의 나라

조상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서울은 고층빌딩의 숲이지만 아름답다. 깨끗하다. 강물을 보기 힘든 로스엔젤리노가 넘실대는 한강을 마주치면 가슴이 벅차다. 한강다리는 30개가 넘고 서울시에만 22개가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강물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한강다리들은 더 아름답다. 그런 다리들 30여개가 서울을 드나들며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다.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면 고속도로, 국도 주변의 산야가 초록 나무들과 살구꽃, 벚꽃 개나리 철쭉 진달래로 끝없이 채워져 있다.

국민학교(초등학교) 시절부터 식목일이면 전교생이 배급받은 묘목을 들고 '벌거벗은 산'에 가서 할당된 나무를 심고, 여름에는 젓가락과 빈봉지를 들고 주변 산에 올라 송충이들을 잡았다.

전교생이 잡아 담은 송충이 봉지를 모



700억원의 기부금으로 지어지며 고급 휴양지에 온 듯한 서울대 중앙 도서관 '관정도서관'

아 불에 태우고 내려오면서 이 짓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전혀 감이 없었다. 40년 후 찾은 고국 산들의 푸르름, 넘쳐나는 나무들의 초록색 물결들, 그 산들 중간중간에 어느때 돌아가신 조상들이 신지 동그랗게 무덤들로 남아있다. 고속도로와 묘지의 미묘한 공존까지 지키는 나라.

'구름에 달 가듯이', 주마등 스치듯 방문한 한국의 명소들이지만, 지방자치

단체들의 경쟁적인 노력과 열성이 맘에 와 닿는다. 전주 한옥마을, 군산항, 한국의 원예 기술의 첨단을 보여주는 순천 국가정원, 여수, 통영, 유치하지만 색 쓰는 (집마다 색을 칠한) 마을들, 섬과 섬을 잇는 많은 흔들다리들, 장생포 고래잡이 마을, 진주의 눈개 낙화 자리, 경주 박물관, 그리고 부산, 진주, 속초, 향구마다 늘어서 있는 횡집들! 구석구석 잘 다듬어 놓았다. 먹거리와 함께.

미국은 스케일이 크고 장엄한 풍광을 자랑하는 반면 한국은 아기자기한 재미 속에 눈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입과 위장을 충족시키는 '먹는 관광'을 가미해 즐거움이 더하다.


미국 촌놈이 40년만에 한국 전국일주를 해보며 흠뻑 고국 재미에 빠져 보았지만 또 다른 로스엔젤리노들은 너무 인공적인 것이 많으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방문에서 경험한 공통적인 평안함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나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나와 똑같은 말을 쓴다는 것, 그리고 탑이 없다는 것이었다.

강릉의 이율곡 생가 오죽헌에서 담아 온 글이 있다.

'구사九思 (아홉가지 생각)- 불 때는 똑바로 불 것, 들 때는 총명할 것, 얼굴 빛은 온화할 것, 용모는 공손할 것, 말은 충성되게 할 것, 일할 때는 공경할 것, 의심날 땐 물을 것, 분할 때는 참을 것, 재물을 얻을 땐 옳은가를 생각할 것.'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며 고국을 뒤돌아 보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일까?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유럽 목회자 모임서 봉사한 며칠 '꿈만 같았다'

홍건(의대 64) 동문의 폴란드 ELF 참가기

광고를 듣고 조기 신청을 하면 100불 참가비를 깎아준다는 얘기에 일찌감치 참가 신청을 했다. 간단히 ELF를 설명하면 European Leadership Forum의 약자로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교육을 돕고 힘을 합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사역자들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카고에서 투자전문가로 일을 하던 Greg Pritchard가 은퇴하고 유럽의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주관했는데 주로 유럽 중부와 동유럽을 목표로 2003년 헝가리에서 25개국의 200명이 참가해 European Leadership Seminar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다. 그 후 매년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모임이 커지면서 2013년부터는 폴란드로 장소를 바꾸어 지금은 60개국에서 800명 가량이 모이는 큰 모임이 되었다. 그 후 스웨덴 신학자로 Apologetic (변증론) 센터장을 맡은 Stefan Gustavsson와 손 잡고 Media Communication 등 27개의 network 를 구성하여 10 ~ 15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senior leader 를 통해서 일 년 내내 YRM (year-round mentoring) 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회의만 해도 141명의 연사들이 발표하는 각종 세미나, workshop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모이는 Plenary Session 이 대강당에서 열렸다.



강의를 비디오 녹화하고 있는 홍건 동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홍건 동문.

의사만도 30명 넘게 참여

떠나기 전에 인터넷으로 모든 강사들과 참가자 그리고 봉사자 명단을 받아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들여다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국에서 36년 선교사로 사역한 한국세계선교협회의 회장 강대희 목사님, 협동총무 노성천 목사님, 독일에서 23년, 필리핀에서 4년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춘 목사 선교사님, 외교관 출신 두란노 국제선교회 본부장, 온누리교회 부목사 한충희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던 박주용 목사님 등 많은 한국분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국제 기독교 의사회(ICMDA, International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 회장인 Dr. Peter Saunders를 비롯하여 일본인으로 수년간 미얀마에서 의료 선교사로 수고하는 Dr. Yasuko Arakawa 등 인도, 인도네시아, 헝가리, 스웨덴, 포르투갈, 아르메니아 등에서 온 의사만도 30명이 넘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5월 21일 오후에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8시간 이상을 뜬눈으로 지새면서 독일 Frankfurt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두시간 후 폴란드 Krakow (크라코프)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밖에는 여러 곳에서 오는 봉사자들을 태워갈 버스가 기다리고 2시간 정도 시골길을 달려 목적지인 Wisla (폴란드 말로 위스와)에 있는 호텔 Golebie Golebiewski (고예비우스키)에 도착했다.

겨울 휴양지 호텔에서 열려

공산치하에 있을때 러시아 최고위 간부들을 위한 겨울 휴양지로서 체코 국경을 걸어서 갈수 있는 아름다운 산악지대에 지은 건물로 러시아가 물러간 후 폴

란드 부자가 인수해 100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호텔로 개조했다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내려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각종 수영장, 사우나 시설이 있다고 한다.

내 룸메이트는 애리조나주 선 시티(Sun City)에서 온 Lynn McAdam 으로 독일에서 30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남자(처음에는 이름이 여자인줄로 착각했음)였는데 지금도 가끔 독일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번이 ELF에 11번째로 참석하는데 아주 편안한 성격에 대화를 나누어 보니 온유한 성품에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하고는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도착한 후 저녁 시간까지 자유 시간으로 날씨는 좀 흐렸지만 스케치북을 들고 잠깐 마을에 내려가서 스케치를 하고 돌아왔다. 저녁을 먹으면서 같은 무디교회에서 온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내일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봉사자 92명 중에 미국에서 온 85명을 포함해 영국 등에서도 참가했으며 36명은 처음이고 56명은 이미 여러번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는 55개국에서 모두 696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386명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왔다고 한다.

내 임무는 강의 비디오 녹화

다음날 아침 모든 봉사자들이 모여 담당할 일의 스케줄을 받고 보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를 녹화하는 비디오를 찍는 일을 맡게 되었다. 맡은 일을 위하여 Camera Operator Training 을 받았다. 삼각대를 펼쳐 놓고 사진기를 장착한 후 배터리를 넣어 충분한 시

간을 녹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새 메모리 카드를 넣어서 렌즈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지 확인하고 녹음을 위한 마이크폰을 부착한 후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볼륨도 조절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강의가 끝나면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꾸고 메모리 카드를 봉투에 넣어 내용을 적고 새 메모리 카드를 넣고 다음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 청중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강사만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는 청중은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강사의 얼굴만 계속 나오게 하여야 한다.

모든 녹화를 두사람이 하는데 첫번째 사람은 강사의 얼굴과 목까지만 나오게 하고 두번째 봉사자는 상반신이 나오고 손과 팔을 움직이는 제스처를 그대로 녹화한다. 따라서 첫번째 사람은 모든 순간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따라가며 찍는 반면 두번째는 비교적 고정된 카메라로 녹화를 하면 된다.

전에 온 적이 있고 경험도 있는 Richard Ball이 1번 카메라를 맡았고 나는 2번 카메라를 맡는 보조 역할로 비교적 쉬웠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2층 1호방을 지키고 모든 강의를 녹화했다. 우리가 담당할 강의는 신학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내용이라 나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 녹화한 강의는 나중에 편집을 해친 유튜브에 올려 참석하지 못한 유럽의 목회자들이 듣고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ICMDA의 회장 Dr. Peter Saunders 를 만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고 식사 후 3층 7호실에서 의사들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약 20명 정도가 모여서 2시간 반 동안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과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금방 오래 사귀 친구처럼 유럽에서 기독교의 사로서의 어려운 삶을 직접 듣는 기회가 되었다.

예술취미 목회자 소모임

다음날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있는 ICMDA 회의에 이제는 제법 안면이 있는 친구로 참여하여 중국, 미얀마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을 들었고 10시에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선교 전략에 대한 보고와 상의를 하였다. 일요일에는 유럽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중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는 분들이 모인 Artists Network라는 그룹에 초청을 받았다. 30명 가량이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가지고 온 그림들을 감상하고 악기를 연주했는데 나는 내 작품이 실린 그림엽서와 한국에서 개인전할때 사용한 도록을 보여주면서 친교를 나누었다. 힘든 목회를 하면서도 같은 예술 취미를 공유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줌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으로 앞으로도 같이 참여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월요일 아침 비디오를 촬영하다가 Ruslan Khmyz 라는 우크라이나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딸은 South Carolina로 가 있고 부인과 아들이 곧 캐나다로 가게 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을 할 수 없고 본인만 남아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지킨다는 말을 들었다.

(17면으로 계속)

머리·뇌 다치는 경우 많아... 예방 핵심은 근력 단련

노년층의 낙상

노년층이 되면 낙상 사고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낙상은 65세 이상 성인의 주요 부상 원인이기 때문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1400만 명의 성인이 낙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년층에게 낙상은 흔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젊은이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과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매년 1400만 명의 성인 낙상
65세 이상의 주요 부상 원인
집 안 낙상사고 80% 육실서**

낙상의 결과로 골절은 물론, 외상성 뇌 손상, 골절, 심지어 사망과 같은 심각한 신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아울러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 낙상 예방하는 방법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낙상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운동 루틴을 유지하라=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고 민첩하게 유지하여 균형을 잡고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며, 넘어지기 시작하면 몸을 더 잘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걷기, 구부리기, 균형 유지에 중요한 근육을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향후 낙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DC는 노년층이 빠르게 걷기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통해 1주일에 150분 동안 운동하거나 조깅이나 하이킹과 같은 보다 강렬한 운동을 1주일에 75분 동안 운동할 것을 권한다. 또한 1주일에 이틀은 근육 강화에 전념할 것을 조언한다.

2.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 치료



낙상사고 중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80%는 욕실에서 일어난다. 사고시 대응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ChatGPT 4o생성]

를 사용하라= 균형을 유지하는 물리 치료 루틴에서 운동은 다리와 코어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코어 강화는 전반적인 건강과 낙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리의 신경 압박이나 등의 뼈 박차와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3. 뇌와 심장 건강을 고려하라=건강한 뇌와 심장은 신체의 균형 능력을 지탱할 수 있으므로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혈

당 수치를 관리하고 당뇨병 및 당뇨병 전증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4.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라=건강한 비타민 수준은 균형을 유지한다. 특히, 비타민 B12의 장기간 결핍은 발의 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B12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균형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일상적인 작업의 일부다. 팔이나 다리의 무감각이나 따끔거림, 허약함이나 균형 문제 등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신경계 증상이 있거나 표준 혈액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주치의는 B12 결핍을 의심한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

5. 약물 사용 목록을 작성하라=특정 약물은 주의력을 변화시키고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나드릴(Benadryl)과 같은 항히스타민제는 항콜린성 특성을 가지며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항콜린성 특성이 있는 약물은 불수의 근육 운동에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되면 넘어지는 동안 스스로를 붙잡는 것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신체의 반응이 느려질 수 있다. 베나드릴은 또한 사람들을 낮 동안 더 졸리게 만들어 잠들거나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낙상에 대한 걱정을 논의할 때 주치의

에게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에 대해 알리면 의사가 낙상 예방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각 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일 약물 외에도 다제요법, 즉 한 번에 5개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낙상은 너무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부작용 및 약물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다중 약물 복용의 위험성과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좋다. 어떤 약을 복용하고 얼마나 자주 복용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6. 음주를 피하거나 줄이라=알코올은 주의력과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에게 음주하지 말라고 조언하거나, 술을 끊을 수 없는 경우 음주를 줄이도록 권한다. 하루에 술을 1잔 이상 마시면 낙상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알코올은 장기적으로 낙상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 간접적으로 신경과 발의 손상에 기여한다. 이로 인해 공간에서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뇌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발의 능력이 감소하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직접적으로 뇌에 대한 독소로서 뇌의 균형 센터인 소뇌에 해를 끼친다.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 연구소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알코올에 대한 신체의 내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시니어는 젊은 성인보다 이러한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16면에서 계속>

가족 사진을 한장 주면서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해 그려주기로 했고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을 주제로 연작 시리즈를 그리고 있으니 좋은 사진들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저녁을 먹을 때 같은 상에 앉은 폴란드 목회자에게 현재 유럽 기독교인의 상태를 물어보니 예전 99%였던 가톨릭이 77%로 줄어 들었고 개신교 교인은 불과 0.5% 밖에 안된다고 한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계속해서 강의 비디오를 찍고 시간이 되는대로 Greg Pritchard 와 Stefan Gustavsson에게 선물로 줄 초상화를 그렸다. 화요일 저녁은 National Day라고 각 나라별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사진도 찍었다.

목요일 아침 체킹아웃을 한 후 잠시 마에 내려가서 그림을 그릴까 했으나 별

안간 내린 비로 포기하고 셔틀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른 봉사자들과 이번 모임에서 겪은 감회들을 나누고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마지막 금요일은 자유 시간인데 나는 Auschwitz Birkenaw Concentration Camp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를 방문했다. 크라코프에서 서쪽으로 70 km 떨어진 곳인데 원래 폴란드 군이 벽돌로 지어진 병영 막사를 독일 나치가 점령하면서 1941년 방문한 하인리히 힘러가 수용소 확장을 지시하고 10월에 3km떨어진 비르케나우에 제2 수용소를 세우면서 최대 규모의 강제 수용소가 됐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

유대인을 비롯하여 유럽 곳곳에 있는 정치범, 소련군 포로, 장애인, 집시, 동성연애자들이 원래 짐승을 실어 나르던 화물차에 실려 이곳으로 끌려왔다. 수용소 입구에 'Arbeit Macht Frei (Works

Sets You Free)'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글씨가 써있어 끌려온 유대인들은 집단 노동수용소나 새로운 정착지로만 알았는데 곧이어 개스처형실을 만들고 샤워실같이 속여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으라고 한 후에 치클론 B 독가스를 사용하여 하루에 1,500 내지 2,000 명씩을 학살하고 시체를 소각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죽은 사람의 머리 카락을 잘라서 카펫과 가발로도 만들었다고 한다.

대략 600만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숫자는 유럽 전체 유대인의 8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옛 소련군의 추측으로는 400만명, 1995년 뉴스위크 기사에 따르면 110만~150만명, 2005년 아우슈비츠 해방 60주년 행사에서는 유대인 희생자를 100만으로 기록하고 있다.

1945년 1월 소비에트연방 붉은 군대 진주로 해방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7

년에 희생자 박물관이 되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 희생자들이 살았던 현장을 둘러 보고 특히나 수용소장을 지낸 Rudolf Hoess가 살던 집과 마지막에 교수형 당한 곳을 둘러 보면서 그들의 잔악한 범죄행위에 몸서리를 쳤다. 특히 의사로서 무서운 인체 실험을 행한 Dr. Josef Mengele가 일을 한 건물을 밖에서 보면서 소름끼치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이제 아우슈비츠는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과격한 사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비극에 대한 경고의 유산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나가서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거쳐 시카고에 도착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꿈만 같았던 며칠 동안 만났던 유럽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생생한 추억 속의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러시아는 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을까



이희백
(의대 61 · 시애틀)

내가 1972년 알래스카를 간 다음해 3월 30일에 Seward's Day라 하여 주 공휴일로 미국이 러시아로 부터 알래스카를 산 날을 기념하는것을 보고 도대체 러시아는 어떻게 알래스카 임자가 되었고 왜 미국에 팔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1968년에 알래스카에 기름이 발견되어 들썩이던 때라 러시아가 판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1867년 3월에 러시아로부터 7백 20만 달러, 에이커 당 2 센트를 주고 알래스카를 샀다. 이 세기의 부동산 거래를 성공시킨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도는 쓸데없는 "어름덩어리"를 샀다하여 국민들의 빈축을 받았고

Seward's Icebox, Seward's Folly란 놀림을 받았다.

내가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임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다. 당시 유럽인들은 "미개지"는 누구나 먼저 들어간 자가 임자라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있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남미를 놓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투게 되자 법왕 알렉산더 6세에게 중재를 요청해 370 경도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도록 했다. 이 조약을 Treaty of Tordesillas 라고 한다. 원주민이 몇 천년 전, 또는 몇만년 전에 신대륙을 "발견", 살아왔다는 사실은 무시되었다.

알래스카에는 러시아인들이 베링해를 건너 "제일 먼저" 정착함으로써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임자가 되었다. 주로 수렵을 해 모피를 수집해 살았는데 모자를 만드는 비버(Beaver) 가죽이 가장 인기 품목 이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러시아는 땅위에 있는 것, 주로 모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남획해서 비버가 품귀해져 알래스카 쓸모가 줄었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광물들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소유했으나 남에게 뺏기지 않을 힘이 없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뺏으리라 짐작한 세력은 당시 가장 강력한 영국이었다. 신생 국가인 미국은 힘이 없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영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한푼이라도 받고 파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팔 대상으로 미국을 택한 것이다.

독도가 누가 주인이 될까 하는 것도 힘에 달렸다. 일본에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주인이었소 했잖아 그들 힘이 크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말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누가 힘이 센가에 달려 있다.

만일 러시아가 미국보다 힘이 더 커지면 알래스카를 다시 자기 것이라고 우길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의 일부였다는 역사를 길게 이야기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알래스카 역사도 들먹일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크림반도가 누구 것이 되느냐도 누구 힘이 강한가에 달려 있다.

남지나해를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도 힘이 커지자 하는 소리고 대만도 결국은 힘에 의해 임자가 정해질 것이다.

조지 W 부시가 정한 세 악의 축 중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는 빼으려는 세력을 막을 힘(원자 무기)이 없어 죽임을 당했다.

또 하나의 악의 축인 김정은은 "다행히" 뺏길 기름이 없고 힘(원자 무기)은 있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정의는 아무데도 없다. 오로지 힘만이 정의다. 알래스카 이야기도 힘에 관한 이야기다.

박무종의 뮤직 저널

'Summer Wine'

오늘 가볍게 와인 한잔 어때요?

지나간 시절의 우리 국력에 관한 안타까웠던 추억을 소환해봅니다.

음식 명칭에 관한 "열등감."

대표적인 global food의 명칭을 꼽아 보면, 그 나라 말 그대로 씁니다.

예로 "steak" "fish and chips" "pasta" "pizza" "sushi" "sashimi" 등등.

그러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음식은 영어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로 냉면은 "cold noodle" 불고기는 "roasted beef" 비빔밥은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of beef and vegetables" πππ

육회는 raw beef (six times라고 쓴 전설도), 추석은 "Korean Thanksgiving Day"라고 한 것과 같은 상황.

그러나 지금은 대접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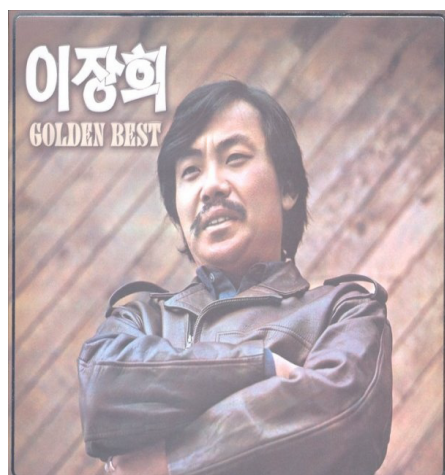
비빔밥은 그대로 "bibimbap" 떡볶이는 역시 그대로 "tteokbokki" 불고기는 "bulgogi"라고 씁니다.

1970-90년대 우리 국력이 약했을 때 술의 경우, 막걸리, 소주 등을 말할 때 쓴 단어가 wine, 즉 막걸리는 Korean wine, 소주는 잘 해야 Korean liquor였습니다. 지금은 soju, makkolli 로 그대로 씁니다.

却說하고, 쉬는 오늘 가볍게 wine한잔 어때요?

Lee Hazelwood (1929-2007: 6.25 참전 용사)와 Frank Sinatra 딸 Nancy Sinatra (1940~)의 duet, "Summer Wine." 그리고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박무종(문리대 언어학과 66)



동문시 이서희 (법대 70)

Palos Verdes Peninsula, Paradise of May in My Heart

Hush, hush for the sake of secret paradise

In May
Scattered spring overall

Lucky you are
Invited to Palos Verdes shoreline
Picturesque scenery drawn by the nature

Narrowly tapestried trail
Blossoms of yellow wild flowers
Gentle breeze

Walking buoyantly
Breathing deeply

Heart is lightly beating
Embedded by sapphire water

Young surfers are forgetting time
They remember sunrise only
Riding and breaking the waves

Falling and rising on the board
Like their life in future

The ocean beckons with sweet wind scent
To anyone valuing the nature

Hush, hush for the sake of secret paradise



문성길 (의대 63)
워싱턴DC 전 동창회장

열무김치와 비빔국수

여 필자는 씻는 역할에서 제외, 좀 편해 지긴 했지만 좀 기분이 그러하다. 허허. 갓 담긴 열무김치는 더운 날 냉면에 말아먹어도, 막국수에 비벼 먹어도, 김치국물 듬뿍 부어 훌훌 들이 마시며 먹어도 일품이었다.

체사픽 만의 특산품 Blue Crab의 명성은 웬만한 식도락가들은 다들 알 것



인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한국 서해안 산 간장게장 먹은 이야기를 어느 분이 침을 튀겨 가면서 하면 필자도 저절로 군침을 흘리며 한참 든곤 집에 왔다. 어느 날 동네 식료품가게서 blue crab을 발견하니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다. 우리 집 식구들 모두가, 특히 입맛이 짧은 집사람마저 Blue Crab엔 끔찍한다. 하기에 상당한 량을 사서 찌서 먹고 일부는 간장게장을 직접 담그기로 했다.

보통 경우는 집사람이 양념게장을 만들어 먹었지만, 이번엔 필자가 유튜브에서 본대로 간장게장을 만들기로 하여 3, 4일 후에 먹는 데 양념게장만은 못한 것 같다하니 집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하며 어깨를 들썩거린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든 간장게장을 먹어보다니, 허-허-, 이것도 은퇴 후 여유로움의 한 단면인가, 은혜의 삶인가 하련다.

동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곳 서부 같은 동네에 이사 온 선배 교우되는 분 왈, 자주 가던 근처 식당이 문을 열마 전 닫았는데 며칠 전 신장개업 광고를 보고 갔더니 음식이 그저 그렇더라고 하며 누군지도 모르는 식당

주인의 미래를 걱정해준다. 그리고 보니 아이들 네다섯 살 때니 거의 반세기전 일, Florida Orlando의 Disney world에서 구경 후 지치고 허기가 저 어렵사리 한국음식점을 찾아 얼마나 반가웠는지! 하지만 음식 먹고 나올 때 이 꼬마 우리 애들이 한 말을 요즈음도 추억거리로 웃으면서 하곤 한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더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식당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가 어떤 사정으로 가게 문을 열은 것이겠구나, 측은한 생각이 들던 젊잖아 보이던 분들, 지금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들 지낼까?

우리 아이들은 인도나, 에티오피아, 중동 음식들을 좋아한다. 나의 생일날이라고 워싱턴 DC에 Adams Morgan 동네 Meskerem 에티오피아 음식점에 초대를 해서 가보니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 많은 미국인(?)들, 아마도 외교관들, 군 출신들이 아닌가 하는 손님들로 만원이다.

명석 같은 자리에 의자들도 없이 좌정, 카레 색의 누런 접시 음식을 맨손으로 집어 먹는 모습에 생일이고 뭐고 입맛이 가셔 거의 먹지를 못하고 집에 돌아와 라면과 김치를 먹고 원기회복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우리아이들은 잘도 먹었으나 집사람은 부창부수라고 필자와 똑같이 자식들의 효도(?)를 잘 견디고 라면으로 뒤풀이, 다 이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니 재미있는 추억이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열무김치가 나는 좋아, 좋아! 유행가 가사는 우리들의 애환이 섞인 노래다. 열무김치 어디 있소!

열무김치 비빔국수가 여기 있소!

듣고 보니 어느 노래가사인 것 같은 착각이다. 친근감과 해학적인 것 같기도 하다. 이 나이에 버려야할 식습관 중 “적게 먹기”에 반대되는 식탐인 것은 분명한데 침샘을 발동케 하는 음식 이야기를 하려 하니 소재가 무궁무진한 것을 어찌하랴.

집사람이 싱싱한 열무를 여러 단 사와 부탁하기도 전, 충성(?)스럽게도 다듬고 씻는 것까지 해 주겠다고 자원을 하니, 아, 그러지 말고 다듬는 과정까지만 해 달라며 선을 딱 긋는 게 아닌가. 왜인고 하니 음식업체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론 기성 열무김치 먹을 땐 간혹, 아니 자주 모래가 씹히기 때문이란다. 이해가 간다. 대량 열무김치 제조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히 씻는 다 한들 개인 가정집에서 처럼 되겠는가. 하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착하게 살아야 장수한다?

지난해 의사가 내게 암4기 판정을 내려 이제 거의 다 살았다 싶었다. 아직 평균수명조차 채우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항암과 방사선 등 집중치료를 받았다. 힘들기는 했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애써 위안하며 견뎌냈다. 울초 몸 구석구석을 CT 스캔했다. 놀랍게도 멀쩡했다. “나쁜 세포가 싹 없어졌으니 이제 백세는 보장됐네요.” 축하 인사 받기 바빴다.

10~20년 전만해도 암에 걸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신약이 개발되고 의학기술이 급상승돼 사람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인간은 몇살까지 살 수 있을까.

성서(구약)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평균잡아 300년은 족히 살았다.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은 800년을 살다가 이성을 떠났다.

최고령자는 므두셀라. 노아의 할아버

지로 소개된 그는 무려 969년을 살았다. 성서속 인물이지만 현대인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아주 크다. 어떻게 해야 오래 사는지 가르침을 줬기 때문이다.

이른바 ‘므두셀라 증후군(Methuselah Syndrome)’은 그의 이름을 딴 심리학 용어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만 남겨두려는 긍정의 심리를 일컫는다. 스트레스를 떨쳐내야 오래 산다고 해서 이런 말이 생겨난 모양이다.

노아도 할아버지의 낙관적인 유전인자를 물려 받아서인지 므두셀라 못지 않게 오래 살았다. 대홍수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이겨낸 그는 950년을 살고 눈을 감았다.

비교적 단명한 이는 뜻밖에도 아브라함이다. ‘믿는 이의 조상’ 이라는데도 그가 살았던 햇수는 고작 175년이다. 하지만 성서에 기록된 그의 부음기사만큼은 찬사가 넘친다.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인간이 너무 오래 살아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신은 이런 말을 성서에 남겼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신이 정한 수명을 꼭 채우고 간 인물은 모세다. 기록에 따르면 1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정력 또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보면 성서도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실감각을 되찾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성서속 인물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면 므두셀라가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워런 버핏 역시 므두셀라 신봉자다. 몇해 전 90세 생일을 맞은 버핏은 부자가 되는 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다. “장수해야 부자가 됩니다.” 오래 살수록 돈을 벌리기 좋다는 뜻일 터. 버핏의 돈 버는 비결은 므두셀라 기

법에 기인한다. 장수와 안정적이고 수익이 짝짤한 투자의 조합을 뜻한다. 버핏은 “므두셀라 모델이 잘 먹히는 것 같다”며 “그래도 나는 아직 목적지에 9%(90세) 밖에 오지 않았다”고 농담을 건넸다.

앞으로 20년 쯤 후엔 전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600만명이 넘는다는 예상도 나와있다. 이제는 평균수명이 인간의 최대수명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장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의학계에서 보는 마의 벽은 120년. 신통하게도 성서에 기록된 인간수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떻게 살아야 천수를 누릴 수 있을까. 잠언에 답이 나와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여기에 ‘긍정의 아이콘’ 므두셀라를 본받으면 120세는 보장될 것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서울대 동문이 107명 “서울대 이름값 하는 좋은 의정 펼치겠다”



5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에 주호영, 조배숙, 권영세 동문 등 29명의 당선 동문이 참석해 좋은 정치를 위해 화합을 약속했다.

당선 동문 축하연

모교 이름 아래에선 여도 야도 없었다. 본회가 5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은 동문 화합의 장이자 정계에 만연한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는 작은 실마리가 된 뜻깊은 행사였다.

지난 4월 10일 치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107명 동문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합해 53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해 48명이며, 조국혁신당 5명, 새로운 미래 1명 등이다. 전체 의석은 야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동문 당선인은 여야에 비교적 고루 포진해 있다.

이날 축하연엔 6선 주호영(ALP 27) 동문부터 5선 조배숙(법학75-79)·권영세(법학77-81)·윤호중(철학81-89)·정성호(사법81-85)·나경원(사법82-86) 의원, 3선 신성범(인류82-89)·박정(농생물81-86)·이언주(불문91-95) 의원, 재선 최형두(사회81-88)·민병덕(정치90-95) 의원, 초선 지역구 박상웅(지리교육79-83)·김기웅(외교80-84)·신동욱(경영84-88)·박수민(경영86-90)·박성훈(정치90-94)·곽상언(국제경제91-97)·박민규(경제93-01)·이용우(수학교육94-02)·김남희(법학96-01)·김재섭(법학06-14)·우재준(정치외교08-16) 의원, 초선 비례대표 위성락(외교73-77)·유용원(경제83-87)·김건(정치85-89)·김윤(의학86-90)·김소희(AIP 57기)·최보윤(법학97-02)·박종권(대학원 공학박사) 의원 29명 등 동문 당선인과 본회 김종섭 회장, 이희범 명예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이선진·박식순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서병륜 관악경제인회 수석부회장, 박민(정치82-86) 관

악언론인회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들, 모교 유희림 총장, 김성규 교육부총장, 김재영 연구부총장, 윤영호 기획부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동문 당선인들은 소속 정당에 따른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대인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나아가 모교의 명예와 모교가 짊어진 소명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종섭 회장은 “철학과나 미학과 출신이 많이 당선됐으면 했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밝히면서 “범대 출신이 많이 당선되니까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꼭 재판정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2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림 총장은 대내외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짚으면서도 “문제가 복잡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하게 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므로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해야 할 것은 타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엔 2300여 명의 전문가 그룹과 미래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싱크탱크로서 서울대가 지닌 역량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출신학교가 아니라 연구기구로서 국가운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오찬 시간엔 당선 동문들이 모두 한 번씩 건배사를 곁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참석 동문 중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동문은 “4년 이상 다닌 동문 두고 1~2년 다닌 저에게 여당 대표로 소감을 요청해 여러 번 고사했으나 너무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다”며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입학한 특별과정에서 김부겸

주호영 의원

“사랑 받는 정치 함께 고민”

정성호 의원

“오늘 계기로 더 소통 노력”

김종섭 회장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정치”

유희림 총장

“연구기구로서 국정 동행”

(정치76-87 전 국무총리) 동문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만 될 당선됐으면 서울대 동문 당선인 수와 똑같아진다. 사랑받는 정치가 될 수 있게 같이 고민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로 소감을 밝힌 정성호 동문은 “처음 국회 입성했을 때 주호영 의원과 같이 법사위에 있었다. 같은 당 의원들과 상대 당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의원을 꼽았는데 그게 주호영 의원이었다”고 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4선을 하는 동안 상대 당 의원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며 어찌 됐든 자주 만났는데, “요즘 의원들은 아예 만남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오늘 모임을 계기로 양당 의원이 자

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근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명예회장은 건배사에서 “33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회의 힘의 변화를 꼭 지켜왔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권력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며 “동문 당선인들이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걸고 국정을 정말 잘 운영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당내에서 선거를 하면 고려대 출신한테 판관이 진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란 게 참 쓸모없고 느꼈는데 오늘 보니 서울대 출신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돼 반성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도 꾸준히 함께 모여 자주 의견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민 관악언론인회 회장은 “방송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인데 공정은 보는 눈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긴다”며 “그래서 요즘은 공정보단 불편 부당을 더 많이 얘기한다. 정치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불편부당일 것”이라고 하면서 “균형감을 갖고 좋은 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언주 당선인은 “선배들은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5000만 국민의 생각이 다양하니 안 싸운다는 건 불가능하고, 세련되게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싸움을 잘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건배사로 ‘잘하자, 쯤!’을 외쳤다.

박성훈 당선인은 “정치학과 90학번 동기가 38명인데 저와 오늘 함께한 민병덕 동문,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동기까지 3명이 당선됐다. 많지 않은 정원이는데도 동문 당선인 3명을 배출해 자랑스럽다”며 교훈인 ‘Veritas Lux Mea’를 건배사로 외쳤다.

나경태 기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 남가주 - 박중수 (수의 58)
-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 뉴욕 - 오인석 (법대 58)
-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 뉴욕 - 김현중 (공대 63)
-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 남가주
- 故노재성 (법대 58)
- 故서영석 (의대 55)
- 故오재인 (치대 33)
- 故윤낙승 (의대 60)
- 강신용 (사대 73)
- 곽용길 (문리대 59)
- 권기홍 (의대 60)
- 김광은 (음대 56)
- 김기형 (상대 75)
- 김대중 (의대 70)
- 김동훈 (의대 71)
- 김보연 (간호대 63)
- 김상찬 (문리 65)
- 김성호 (법대 64)
- 김수영 (사대 57)
- 김재영 (농대 62)
- 김정빈 (공대 66)

- 나두섭 (의대 66)
- 류재풍 (법대 60)
- 박명근 (상대 63)
- 박용필 (문리대 66)
- 박원준 (공대 53)
- 박윤수 (문리대 48)
- 방명진 (공대 73)
- 백길영 (의대 58)
- 백만일 (공대 64)
- 서동영 (사대 60)
- 신건호 (법대 53)
- 신영찬 (의대 62)
- 심상은 (상대 54)
- 안병일 (의대 63)
- 오홍조 (치대 56)
- 이근원 (공대 67)
- 이명선 (상대 58)
- 이성숙 (공대 56)
- 이세열 (사대 57)
- 이승훈 (상대 74)
- 이체진 (문리대 55)
- 이청광 (상대 61)
- 임낙균 (약대 64)
- 임용오 (의대 57)
- 전경배 (의대 69)
- 전희택 (의대 58)
- 정균희 (의대 64)
- 정동구 (공대 57)
- 정임현 (간호대 72)
- 정철룡 (의대 55)
- 제영혜 (가정대 71)
- 조용원 (문리대 66)
- 조환원 (의대 57)
- 차민영 (의대 76)
- 차중환 (사대 54)
- 한효동 (공대 58)
- 홍성선 (약대 72)
- 홍중화 (약대 74)

뉴욕

- 故김광호 (문리대 62)
- 故한창섭 (문리대 57)
- 강에드워드 (사대 60)

- 고애자 (음대 57)
- 권영국 (상대 60)
- 김승호 (공대 71)
- 김영용 (치대 55)
- 김종률 (사대 51)
- 김한중 (의대 56)
- 김해암 (의대 52)
- 배정희 (사대 54)
- 서영숙 (간호대 67)
- 석창호 (의대 66)
- 손진태 (약대 67)
- 신응남 (농대 70)
- 윤중숙 (약대 66)
- 이강홍 (상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이대영 (문리대 64)
- 이영재 (상대 58)
- 이재덕 (법대 60)
- 이재량 (상대 61)
- 이전구 (농대 60)
- 이준행 (공대 47)
- 이태호 (상대 58)
- 최수용 (상대 55)
- 최영태 (문리대 67)
- 최한용 (농대 58)
- 추재욱 (의대 57)
- 한태진 (의대 58)
-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 故고일석 (보건대 69)
- 故박경민 (의대 53)
- 김광수 (문리대 73)
- 고종성 (사대 75)
- 김문소 (수의대 61)
- 김용구 (공대 66)
- 오세경 (약대 61)
- 윤선홍 (치대 64)
- 이의인 (공대 68)
- 전신의 (문리대 57)
- 정정욱 (의대 60)
- 정태영 (문리대 71)
- 조만연 (상대 58)
-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 故방은호 (약대 43)
- 강연식 (사대 58)
- 공순옥 (간호대 66)
- 권기현 (사대 53)
- 민홍기 (문리대 61)
- 박평일 (농대 69)
- 서희열 (의대 57)
- 오인환 (문리대 63)
- 이내원 (사대 58)
- 이선구 (문리 65)
- 이윤주 (상대 63)
- 최재귀 (미대 63)
-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 故남상용 (공대 52)
- 故정태 (의대 57)
-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 손석보 (공대 68)
- 윤정옥 (약대 50)
- 최경선 (농대 65)
-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 강영국 (수의대 67)
- 심상구 (상대 63)
- 이재희 (치대 67)
- 장윤일 (공대 60)
- 조봉완 (법대 53)
- 최의필 (의대 53)
-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 김상순 (상대 67)
- 박희진 (농 78)
- 이은상 (상대 52)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샌디에고

- 임천빈 (문리대 61)
- 미네소타
- 김권식 (공대 61)
- 김태환 (의대 58)
- 남세현 (공대 67)
- 변우진 (인문대 81)
-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 김용현 (경원 66)
-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 故김영일 (공대 53)
- 이명자 (간호대 74)
- 이희백 (의대 55)
- 임한민 (공대 84)

조지아

- 김용건 (문리대 48)
- 석호태 (공대 85)
-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 김중권 (의대 63)
-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 박태우 (공대 64)
- 이광연 (공대 60)
-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리대 55)
- 김현영 (수의대 58)
- 서종민 (공대 64)
- 손재욱 (가정대 77)
- 신성식 (공대 56)
-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 김명자 (문리대 62)
- 김시근 (공대 72)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대 69)
-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3.12.31;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진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욱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남영 (공 53) 김원탁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명희 (간) 김문엽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태 (문 61) 김원탁 (공 65) 김일영 (의 65)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홍목 (문 60) 김희창 (공 64) 김두섭 (의 66) 이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문경호 (문 59)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영기 (공 65)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은희 (미 68)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종수 (수 58) 박찬호 (공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옥 (간 69) 박호현 (의 52) 박홍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방명진 (공 73)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성낙호 (치 63) 성주경 (상 68)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진태 (약 67)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웅 (의 63) 오찬수 (약 57) 故 오형원 (의 53) 우춘식 (상 61) 위종민 (약 57)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아중 (농 74) 유석환 (의 55) 육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우 (의 56) 이서희 (법 70) 이상숙 (공 56)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수 (상 60) 이영일 (문 53) 이영현 (간 70) 이용환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의 57) 이채진 (문 55) 이태영 (법 60)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근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명자 (사 56)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동철 (사 68) 조재국 (농 67)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조총자 (간 61) 조태욱 (사 60) 주훈 (음 69) 차중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기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원민 (의 59) 한의일 (공 62) 한정현 (치 55) 한홍택 (공 60) 현기웅 (문 64) 홍성식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홍 (의 59) 황헌상 (의 55)

뉴욕

- AiJa Lee 계동휘 (치 67) 객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문경 (상 60)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영무 (공 75) 김영웅 (치 55) 김영진 (문 50) 김영철 (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거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연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우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변경웅 (공 65) 변호련 (간 63) 배상규 (약 60) 서병선 (음 65)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신중철 (의 59) 성기로 (약 57) 손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오용호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이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명중 (공 72)

-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종일 (의 65) 이상근 (상 84) 이상우 (의 56) 이영일 (의 60) 이유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행 (공 48) 이태안 (의 61) 이흥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용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대 (문 67) 최승운 (의 61) 최준희 (의 58) 최정용 (사 63) 최한웅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웅 (문 71) 한대진 (의 58) 함중금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선형 (의 58) 허정덕 (사 63)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소 (수 61) 김선홍 (약 59) 김승동 (사 58) 박영철 (농 64) 박종근 (의 56) 송미자 (농 62) 송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상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승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주창춘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네바다

- 김상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이학은 (약 57) 정상진 (상 59) 최회기 (공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박희기 (공 88) 성유진 웅정식 (농 86) 이창재 (문 56) 주한수 (수 62) 황효숙 (사 65)

미시간

-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공 56)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박용화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 주명순 (간 64) 하계현 (공 64)

북가주

-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정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왕 (공 64) 남광순 (공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성형 (공 57) 이장우 (문 72) 이창환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래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관 (공 54) 정춘임 (간 67) 조태욱 (사 60) 최경진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 고경하 (공) 김인철 (약 70) 남장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면기 (공 64) 이영신 (간 77) 임춘수 (의 57)

시카고

- Ja H. Song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동희 (공 66)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영우 (문 66) 김용환 (공 71)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4)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박창욱 (공 56) 백운기 (문 56) 서상현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이경미 (미 69) 이건철 (공 69) 이동균 (공 75) 이소희 (간 68) 이승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송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희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타

- 김인기 (문 57)

조지아

- 김기춘 (공 61) 김영서 (상 54) 김중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Steve Sung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충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웅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중진 (의 63) 한성수 (의 54)

하와이

-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윤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운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텍사스

- 김정환 (공 81) 유황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형 (문 67)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귀화 (상 63)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서중민 (공 64)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엄중렬 (미 61) 유영걸 (의 70) 윤경숙 (문 59)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상수 (생 74) 이수경 (사 81) 이지춘 (미 57)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수 (상 61) 전남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학량 (약 56) 정홍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홍민 (수 61) 최중자 (상 63)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웅우 (보 70)

하와이

-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윤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운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텍사스

- 김정환 (공 81) 유황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형 (문 67)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귀화 (상 63) 김현영 (수 58)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흥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200
신응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형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형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플로리다	
김종권 (의 63)	200
오석일 (의 64)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1,000
민홍기 (문 61)	200
서윤석 (의 62)	1,000
박평일 (농 69)	100
백순 (법 58)	2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영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승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조지아	
최종진 (의 63)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240
김일영 (의 65)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24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상훈 (상 74)	480
이태영 (법 60)	24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신응남 (농 70)	24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시카고	
김현주 (문 61)	3,000
이용락 (공 48)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의석 (공 53)	5,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0,000
박수경 (생 84)	3,0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펜실베이니아	
손재욱 (가 77)	200
신의석 (공 53)	5,000
지부분담금	
남가주	
임춘택 (상 68)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뉴욕	
연영재 (공 74)	
미네소타	
용정식 (농 86)	

북가주	
김범섭 (공 79)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록키마운틴스	
최문기 (공 73)	
조지아	
배혜영 (음 79)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시카고	
조규승 (문 72)	
애리조나	
정인주 (농 82)	
오레곤	
박희진 (농 78)	
오하이오	
이성우 (자 72)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워싱턴	
임현민 (공 84)	
캐롤라이나	
정신호 (자 78)	
플로리다	
윤기형 (법 65)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휴스턴	
김정환 (공 80)	
하와이	
성낙길 (문 77)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중효 소아과
박중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쥬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FLONOMIX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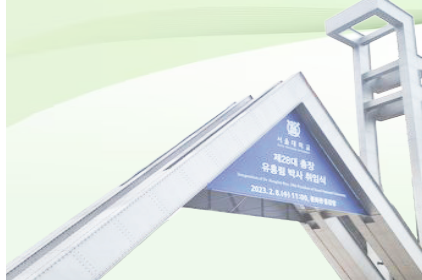
COMPUTATIONAL SOLUTIONS FOR ENGINEERING EXCELLENCE

박희진 (농대 78)

503-648-0775

www.flonomix.com


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 | Code Studies and Seminars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박창규(약)
고문: 이영일(문) 이재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호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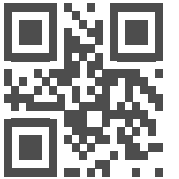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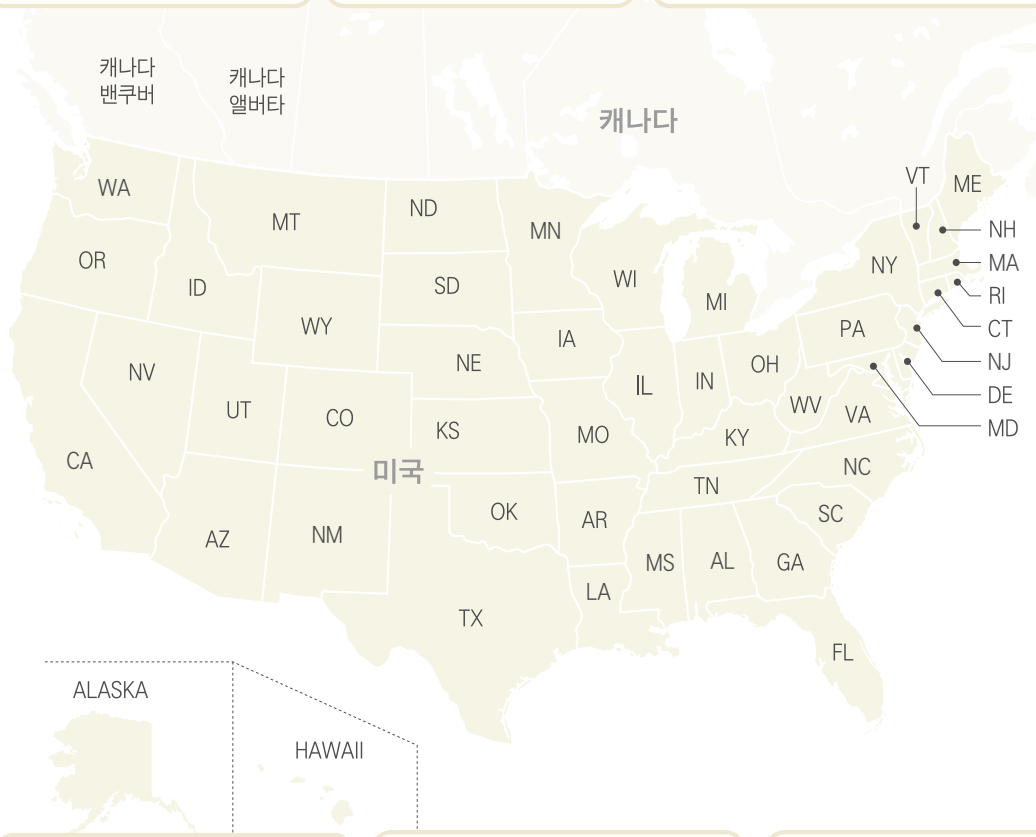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 (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 (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 (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 (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 (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 (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 (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 (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 (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 (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 (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 (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 (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tf@hotmail.com	뉴욕 NY/NJ (July~Jun)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snu@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정세근 (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 (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 (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 (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 (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루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 (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 (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 (공대 91) kunhok@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 (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 (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 (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 (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아리조나 ARIZONA 정인주 (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 (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 (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 (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Beverly Cardiology Group

베벌리 순환기내과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김일영 (의대 65)



최무식 (약대 66)

Gilbert Drugs

길벗약국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T: 714-638-8230 | markchoirx@gmail.com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 수원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뺨크 뺨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흠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욱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쫓인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섶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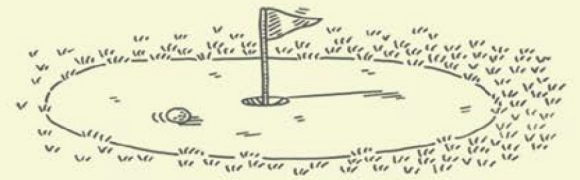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님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두~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